

2024학년도 중등 교육 임용시험 대비

단기합격을 위한 월비스임용

GUIDE BOOK

장영희 전공중국어



1544-3169

목 차

01. 장영희 소개
02. 임용시험 응시자격과 유형별 출제범위 및 배점
03. 출제경향 분석과 강의 적중률
04. 합격생 장영희전공중국어 강의활용과 학습전략
05. 2024학년도 대비 연간 커리큘럼
06. 1-2월 강의 계획 : 두 강좌(이론입문반, 독해입문반)
07. 합격 수기

【1】 장영희 소개

1. 장영희 선생님 프로필

학력, 자격증

- . 중앙대학교 중어과 졸
- .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 중문연구소 석사
- . 타이베이 국립정치대학교 중문연구소 박사
-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

경력

- . 前, 주타이베이 한국대사관 영사과 근무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교육대학원, 한중번역대학원 강의
- 중앙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 한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출강
- (주)KG에듀 희소고시학원 전공 중국어 강의(2001~2020)

현직

- . 現, 월비스 전공중국어 강의(2022. 1. 1 ~)

저서

- (1)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제1권 교육론과 어학개론》장영희 편저, 2017년 개정판, 미래가치
- (2)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제2권 어법》장영희 편저, 2017년 개정판, 미래가치
- (3)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제3권 문학개론(현당대·고대문학)》장영희 편저, 2021년 개정판, 미래가치
- (4)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독해 입문편》, 장영희편저, 2017년, 미래가치
- (5)교원임용대비 《필독단어집》, 장영희편저, 2017년, 미래가치
- (6)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이론 실력강화편》장영희 편저, 2017년 3월, 미래가치
- (7)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독해 실력강화편》, 장영희편저, 2017년, 3월 미래가치
- (8)《중국어 95점 면접과 수업실기》, 장영희편저, 2020년 11월, 미래가치
- (9)《주제별 기출문제집(1997~2020)》, 장영희편저, 2020년, 미래가치

【2】 임용시험 응시자격과 출제범위 및 배점

1. 응시자격과 중국어과 범위

선발분야	응시자격과 범위
중등학교 교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중국어과 범위	교육부고시 제2017-126호(2017.8.30) 중국어 교육론(또는 외국어 교육론), 중국어학개론, 중국문학개론, 중국어문법, 중국어회화, 중국어작문, 중국어강독, 한문강독, 중국어권문화

2. 시험일정 및 배점

시험일정 (2023학년도 시험 기준)

전형별	시험과목		대 상	날 짜	시 간
제1차 시 험	교육학(20점) 논술형1문항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2.11.26.(토)	■ 1교시 09:00~10:00(60분)
	전공 (80점)	A (단답식 4 문항서술 식 8 문항)			■ 2교시 10:40~12:10(90분)
		B (단답식2문항서술 식9문항)			■ 3교시 12:50~14:20(90분)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 험	수업능력평가 (60점)	수업실연	제1차시험 합격자	2023. 1.18	■ 09:00 ~ 【평가시간】 - 수업실연(15분) - 수업나눔(10분)
		수업나눔			
	교직적성 심층면접 (40점)	집단토의 최근생략 (경기)	제1차시험 합격자 전원	2023. 1.19	■ 09:00 ~ 【평가시간】 - 개별면접(10분)(경기)
		개별 면접			

- 2차 시험 세부사항별 대비는 매년 약간씩 다름.

- 2차 변별력 매우 높음: 2차 시험부터 배점 간격은 60~100점. 1차 점수가 높아도 2차에서 점수 간격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가 흔하다.



1544-3169 단기합격 강의 시스템

【3】 출제경향과 강의 적중률

1. 중국어 임용 시험 출제 경향과분석

-내용이 매우 평이하다.

-어법과 어학개론 출제비율이 높다. 특히 어법문제가 가장 많다.

-현대문학사와 고대문학사 비율이 낮다.

-순수 서술식 문제가 줄어들고 지문에서 답을 찾아 쓰는 문제가 다수를 차지한다. 단답식뿐만 아니라 구나 문장을 찾아쓰는 문제가 다수다.

-따라서 서술식 문제가 4-5개 문제가 되지만 작문력에 따라 부분점수가 차이가 나고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관건이다.

-어법 영역 : 품사, 문장성분, 명사, 전치사, 접속사, 겸어문, 강조문("是~的"문), '有'字문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다.

-어음 영역: 모음,자음,청음과 탁음,색음과 색찰음 등 기본지식과 경성후 음색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됨.

-문화부분 출제 내용은 예년과 다른 서예와 한자서체, 음식-산서따오시아오면(刀削面)이 출제되었다.

-**작문력 여전히 중요:**서술식 문제가 많은, 답의 내용이 길든 작든, 원문으로 조리있게 쓰는 것은 작문력이 좌우되고 **문제가 쉬울수록 문장력에 따른 부분점수가 차이가 난다.** 일부 생소한 단답식 문제는 모두에게도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작문력이 변별의 관건이다. 오문여부, 초급수준, 중급수준, 고급수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 중국어문장 쓰기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득점으로 이어진다. 쓰기 훈련이 매우 필요하다.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2. 2023기출 답 키워드와 장영희강의 적중도

A형	유형	영역	답키워드	특징	적중도 강의자료와 수업
1	기입형/ 기출연관	2015교육과정:성취 기준-写	词序/准确性	난이도 하	100%
2	기입형 (일부,찾아 쓰기)	어법+독해(어휘)	拟声词(혹은 象声词)/约定俗成	난이도 하	100%
3	기입형/ 기출	독해- 숙어(성어)	意/久	난이도 하	100%
4	기입형/ 기출	현대문학사-오사시 기-노신	《中国小说史略》/ 谴责小说	난이도 중	50%
5	서술형/ 기출연관	교육론- 제2언어학습이론	中介语/偏误	난이도 하 기본개념	100%
6	서술형 기출연관	어법(명사)+교사교 육활동	技能/协作/应该改正为:我有两 个中国朋友	난이도 하	100%
7	서술형 (찾아쓰기)	문자+문화	楷书/㉠-㉢-㉠-㉢/张旭/把狂草 艺术升华到了极其深刻的境界	난이도 중	70%
8	서술형 (모방작문)	어학개론-음성-경성	夏元音/浊塞擦音/清塞音变成浊塞音	난이도 중	100%
9	서술형 기출연관	어법-정태보어,‘有’ 자문,겸어문	中文说得越来越好了/ 有很多地方都听不懂/ 我请他帮我复习	난이도 중	100%
10	서술형 기출연관	어법-동사-동사중첩	等我一下儿/他在听课呢,~”	난이도 중	100%
11	서술형 기출연관	현대문학사-오사시 기+독해(현대문학작 품	想陪父亲一直喝酒,但没有 做到/周作人/《谈酒》	난이도 중상	70%
12	서술형 (찾아쓰기)	독해-고대한어(운 문)+고대문학사	面对面的两个人一起喝酒/ “隐居的高士”和“意气相投的 好友”/李白	난이도 중	90%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B형	유형	영역	답키워드	특징	적중도 강의자료와 수업
1	기입형 기출연관	교육과정- 의사소통기본표현	条件/处所/”	난이도 하	100%
2	기입형	문화-음식	山西/刀削面	난이도 중상	0%
3	서술형 기출연관	교안-학습목표작 성+어법,어휘	能够进行购买的交际活动 /货币/ 选择	난이도 중	100%
4	서술형 (찾아쓰기)	어학개론-문자- 한자구조	学/觉/让学生从一组字中找出包含相同部 件的汉字	난이도 중상	100%
5	서술형 기출연관	작문-어법-전치사 접속사	我都还不太熟/ 爸爸、妈妈、姐姐和她	난이도 중상	100%
6	서술형 기출연관	어학개론-서론-중 국어특징-어법과 어휘방면특징	“我去过一个地方,非~”(혹은“那个地方 我去过,~”)~小的八岁”	난이도 중상	80%
7	서술형 기출	어법-강조문-“是 ……的”문	我是在路上碰到小张的/在路上/你(是)什 么时候回来的?	난이도 중상	100%
8	서술형 찾아쓰기	독해- 회화 (찾아쓰기)	不受欢迎/的确//上瘾/变化巨大又彻底。	난이도 중하	100%
9	서술형 기출연관	어법- 조사- 구조조사	状语/补语/~吃得太饱不好	난이도 중	100%
10	서술형 기출/찾아 쓰기	독해- 고대한어+ 성어	揠苗助长(혹은拔苗助长)/”爪其肤以验其 生枯”和”摇其本以观其疏密”/种树	난이도 중	100%
11	서술형 기출/찾아 쓰기	현대문학사- 작품 -오사시기	当时阴郁的中国社会/新月派(新格律诗 派)/音乐美。	난이도 하	100%

※적중도는 1년 수강학습을 기준으로 함

이론				독해	
어법	어학개론	문학사	교육과정/ 교육론	현대문	고문
22점	14점	8점	12점	18점	6점
작문4점 포함	서론4, 문자6, 음성4	현대6, 고대2	연계문항포 함	숙어와어휘4, 회화문4 문학작품:운문2,산문2 문화6	문학작품:운문2,산문2 숙어2
56점				24점	

모두 실력이 오르는 강의를 합니다 !
강의적중 90% 쓰기적중 90%



1544-3169 단기합격 강의 시스템

모두 실력이 오르는 강의를 합니다 !	
강의적중 90% 쓰기적중 90%	
기본 + 심화지식+ 쓰기실력 확보+독해력+실전력	

3. 수업교재와 추천도서

첫째, 장영희 전공중국어 강좌별 교재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와 자료에는 필수 참고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수업 교재 외 다른 참고서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 이론입문반(1-2월)

*전공중국어(3권), 장영희 편저

- 1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01 교육론과 어학개론》, 미래가치 **2022개정**
- 2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02 어법》, 미래가치 2017 개정
- 3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03 문학개론(현당대·고대문학)》, 미래가치 **2021개정**

나. 독해입문반(1-2월)

- 1.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입문편》, 미래가치, 2017 개정
- 2.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필독 단어집》 미래가치
- 3.교원임용대비, 중국어기출해설(주제별 1997-2020),장영희,2020 , 미래가치

다. 이론-실력강화반(3-6월)

- 1.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이론 실력강화편》미래가치
- 2.《实用现代汉语语法》, 刘月华 潘文娣 등 공저, 商务印书馆
- 3.《现代汉语(上,제6판)》, 黄伯荣·廖序东主编, 高等教育出版社

라. 독해-실력강화반(3-6월)

1.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실력강화편》 미래가치 2017 개정
2.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필독 단어집》 미래가치
- 3.교원임용대비, 중국어기출해설(주제별 1997-2020),장영희,2020 , 미래가치

마. 기출문제 해설집(특강)

교사 임용시험대비 《중국어 기출문제 주제별 해설집》 (1997~2020학년도) 미래가치

바. 2차 시험 대비(12월-1월)

《95점 중국어면접과 수업실기 》(기출문답 포함) 미래가치 **2020.11 개정판**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둘째, 교사 임용 대비 전공 중국어 참고서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와 자료에는 필수 참고서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도서 목록 중 * 표시 도서 주요 내용은 장영희중국어 수업 교재 안에 포함됩니다.

가. 교육과정과 교육론

- * 《장영희전공중국어 01 교육론과 어학개론》.미 래가치 2022개정
- *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교육평가원
- *对外汉语教育学引论, 刘珣,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对外汉语课堂教学技巧, 崔永华 杨寄洲 主编,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中国教育思想史(第一卷~第四卷), 孙培青 李国均 主编, 华东师范大学出版社
- 2015개정 고등학교 중국어 I · II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나. 중국고대문학과 현대대문학사

- *교원임용대비 《장영희전공중국어 03 문학개론(현당대·고대문학)》.미 래가치 2017 개정
- *中国古代文学基础, 韩传达隋慧娟 编著, 北京大学出版社
- *中国现当代文学基础, 李平编著, 北京大学出版社
- *中国现当代文学史教程, 欧阳祯人主编, 北京大学出版社
- 中国文学史, 金学主 著, 新雅社 / 중국문학사(第一卷~第四卷), 袁行霈主编, 高等教育出版社
- 古典文学 常识百题, 岳麓书社, 湖南省 / 中国现代文学史, 金时俊, 지식산업사

다. 중국어법

- * 《장영희전공중국어 02 어법》.미 래가치 2017 개정
- *现代中国语文法(增订本), 刘月华, 商务印书馆(이론심화반 교재)
- *汉语病句辨析九百例, 程美珍 主编, 华语教学出版社, 北京(중국어문장바로쓰기 2 원서)
- *对外汉语教学实用语法, 卢福波 著,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现代汉语概论, 陈阿宝主编, 吴中伟副主编,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实用汉语语法三百点, 戴雪梅 외, 新世界出版社(원서)
- 现代汉语(增订六版, 下), 黄伯荣廖序东主编, 高等教育出版社
- 外国人学汉语难点释疑, 叶盼云 吴中伟 编著,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원서)
- 중국어문장 바로쓰기(I)(2)(3), 김현철 외 편역, 신아사
- 퀴즈퀴즈중국어중국어문법, 胡振刚·俞稔生 著, 기화룡 역, 시사중국어문화원

라. 중어학개론

- * 《장영희전공중국어 01 교육론과 어학개론》.미 래가치 2021 개정
- *现代汉语(增订六版, 上), 黄伯荣廖序东主编, 高等教育出版社 (심화이론반 교재)
- 现代汉语概论, 陈阿宝主编, 吴中伟副主编,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现代汉语, 周建设 主编, 人民教育出版社
- 중국어학개론, 한용수 지음, 선학사 / 중국 언어와 문자, 박홍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마. 독해

1. 구어

- *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입문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 산문 다수 수록)
- *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실력강화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 산문 다수 수록)
- *汉语口语习惯用语教程,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外国人说熟语, 徐宗才·应俊玲 编著, 北京语言大学出版社
- *典故, 尹斌庸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成语, 尹斌庸 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惯用语, 尹斌庸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谚语, 尹斌庸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歇后语, 尹斌庸编著, 华语教学出版社 / 高级汉语教程(第一~第四册), 姜德梧 主编, 经济科学出版社

2. 고대한어

- *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입문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 산문 다수 수록)
- *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실력강화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 산문 다수 수록)
- *중국고전산문, 최봉원 역, 다락원
- *古文观止译注, 吉林文史出版社
- 唐诗选, 이중한·이영주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http://www.baidu.com>

3. 현대대문학

- * 《장영희전공중국어독해 입문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산문 다수수록)
- * 《장영희전공중국어 독해 실력강화편》(현대한어 문학편, 현대한어 비문학편, 고대한어 운문 산문 다수 수록)
- *중국, 현대문학, 이화영 역음, 동양문고
- *중국현대대문학선독, 정재량·정유선 선주, 학교방
- 中国现代文学作品选, 金时俊 朴云锡 편주, 지식산업사
- 鲁迅文集(I ~ V), 竹内好 역주, 김정화 옮김, 일월서각
- 루쉰소설전집, 김시준, 서울대학교출판부 / 노신선집[1] 소설·수필, 노신문학회 편역, 여강출판사
- <http://www.baidu.com>

도서구입처

- 가. 장영희 편저 교재 : 일반 대형 서점,
미래가치(http://m.miraegachi.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841&cate_no=1&display_group=3)
- 나. 원서 : 화문서적 (<http://www.huawen.co.kr> 031-8071-4229)
중국서적 (<http://www.chinabook.co.kr>)



1544-3169 단기합격 강의 시스템

【4】 합격생 장영희전공중국어 강의활용과 학습전략

1. 장영희전공중국어 강의특징과 합격생 강의활용

⇒단기간내 합격 수준에 도달합니다

년 간 9번 반복 설명으로 기본이 원해지며, 3월부터 전 강좌 쓰기첨삭으로 누구나 쓰기 실력이옵니다. 쓰기 제로출발에서 합격까지 노랑진 유일강사첨삭과 최대첨삭, 개별 피드백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쓰기 향상을 보장합니다.

⇒문해력이 중요한 최근 시험 경향을 반영한 다수의 합격자가 추천하는 “고 퀄리티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력점검과 실력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영희 중국어는 소화 가능한 자료부터 수석합격가능까지의 자료를 단계별로 선별하여 제시하고 반드시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혹은 변형문제를 통하여 쓰기 훈련을 합니다.

1) 2021 경기합격, 장**, 3년준비 - 수업활용

[1차] ‘주요내용 반복학습’과 ‘모의고사 피드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법, 어학, 문학사 등 주요내용을 반복하면서 정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최소 몇 번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복의 시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써보며 공부하시면 더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피드백을 통해 전체적인 답안의 깔끔함, 내용 등을 피드백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직접 글로 잘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들은 상담을 통해 같이 공감해주시고 방향 설정을 도와주셔서 좋습니다. 초수 때 직강을 수강할 때에는 7-8월, 9-10월 이렇게 새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장쌤과 개별상담, 스터디 상담을 하면서 공부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장영희 연간 수업 장점:

- 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오랜 임용 경험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대로만 공부해도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연간 수업을 들을 때,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고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연간 수업시 비용이 저렴합니다. 두 달마다 결제하려면 비용이 부담되는데 연간 수업시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2) 2021 강원 수석 송**, 3년준비 - 1~2월 마음가짐과 생활

적극적으로 배우고자하는 마음가짐.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함. 생활은 초수때 수업시작 30분전에 와서 책을 봤습니다. (중국관련 서적 및 중국현당대문학사 관련서적)수업 끝나고 스터디를 하고 스터디 끝나면 집으로 바로 귀가. 재수때는 어법노트정리. 삼수때는 문학사 노트정리, 그리고 기출분석을 진행함. 짝스터디로 기출문제 풀어오고 단어 찾아오고 문제 분석하는 작업을 함 3~4월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 또한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본문이나 혹은 문제 해설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은 따로 단어표를 만들어서 시간날 때마다 익혔음

3) 2021 대구 수석 엄**, 2년준비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듣고, 그 부분은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게 복습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4) 2021 대구 합격 **, 서**, 2년준비

서브노트)초수 때 어학, 어법 노트 정리했습니다.어학은 <현대한어>를 정리했습니다 책 내용을 제 방식대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어법은 기출된 어법점들을 기출 답안과 <노복과 대외한어> 참고하며 정리했습니다

재수 때도 초수 노트 계속 봤습니다 노트는 정말 기본 위주로 정리했어서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다시 정리하기 보다는 노트 계속 무한 반복 암기하고 예시나 심화 내용 조금씩 덧붙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9-11월에는 스터디도 여러 개 했습니다 혼자서는 잘 보지 않게 되는 영역을 스터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1.단어 스터디: 100시리즈와 습관용어 봤습니다

2.기출 스터디: 장영희쌤 모의고사에 기출과 거의 유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수 때 이미 기출을 몇 번 풀어봤기에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만큼 답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스터디를 통해 매일 연도나 문법점 상관없이 랜덤으로 출제하여 풀었고,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3.문학사 스터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참고하여 평일 아침마다 고대문학 3문제 현대문학 1문제 출제 후 교환하여 풀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로, 답은 단답형 중국어로 출제하였습니다 답은 오타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종이에 써서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끕니다

장영희선생님수업활용)저는 장영희쌤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들어 전공은 칼채점 방식으로 굳혀진 듯합니다 그럼 칼채점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해보니 모범 답안과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은 출제자가 논문이나 원서에서 뽑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장영희쌤 답안은 정말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답안을 또 하나의 서브 노트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단어나 문장 구성 등을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칼채점에서는 핵심만 쓰는 답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적어 해당 지식을 표현하는 답안보다 모범 답안에 가장 근접한, 정말 원서에 써 있을법한 답안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불합의 원인을 찾자)사실 저는 이론 강의를 많이 수강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 다 시험 당일 역시 모르는 문제도 많았구요. **재수 이상 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하시거나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 때 기출 문제를 풀고 초수 답안이란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답안 쓰는 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답안을 고치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답안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외우는 게 답입니다. 외우다 보면 답안 작성법이 귀납적으로 도출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구요. 아는 문제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점수 따내겠다라는 마인드로 답안을 모범답안에 근접하게 작성하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수이신분들은 기본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에 합격을 못했던 이유는 너무 제멋대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수 때 이론 강의도 많이 듣지 않았고 첨삭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보니 많이 에둘러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용은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수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에 효율적이기 쉽지 않습니다. 장영희쌤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믿고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 2021 대구 합격, 전**, 2년준비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학 파트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용도 너무 생소하고 중국어 실력도 낮은 상태에서 답을 작성하려고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교재로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현대한어 책과 암기카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 다. 반복할수록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어떻게 답을 작성해야할지 포인트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학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파트는 특히 기출을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장영희 선생님 수업의 장점은 기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과 비슷한 유형, 내용의 문제를 많이 접하여 답안을 써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점점 다른 문제로 응용 확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6)2020경기합격자, 이 * * (3년제 타학원에서 이동, 연간회원)

저는 초수때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지만, 반복적으로 복습하지 않았습니 다. 그때는 반복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2년, 3년 공부하다보니 저절로 반복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 반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N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N수생은 이미 어느 정도 공부한 것도 많고, 임용에 대한 큰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같은 커리큘럼을 또 들을 때 지루하고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하는 것처럼 공부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020경기합격자, 최종 3 등, 조 * * (2 년간 연간회원 : 첫해초수트랙, 둘째해N수트랙, 1 차전공 71점)

내용이 너무 많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진도대로 공부하면 어느새 잘 익히고 계실겁니다. 스터디도 적극 활용해서 함께 힘든 점도 나누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원과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공부해서 덜 힘들고 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라고 하신대로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꼭 실천해봤습니 다.** 개인마다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해가면 더 빨리 실력이 향상하실 되실 수 있어요~

새로운 표현은 교수님께 질문해가며 수정하고 도전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사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8)2019경기차석합격, 이 * * (2 년간 연간회원 : 첫해초수트랙, 둘째해N수트랙))

쓰기 연습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임용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쓰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쓰기 기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드백도 꼼꼼히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9)2019서울차석합격, 신 * * (첫해타학원, 2 년, 장영희수업첫해초수트랙, 둘째해N수트랙)



1544-3169 단기합격 강의 시스템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끎니다

교수님이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첨삭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피드백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정도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공부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첨삭과 피드백을 해주는 분은 노랑진에 교수님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1차에서 2차합격까지 원스톱 강의를 합니다. 장영희 2차 수업은 95점을 목표로 합니다. 유학10년과 오랜 임용지도 경력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칼^^ 피드백으로 중등학교 실제 사례를 통한 지도를 합니다. 2차도 제로 출발에서 고득점 합격 전략 지도를 합니다.

[연간패키지-장영희전공중국어 합격생70%이상]

장영희강좌합격자는 70%이상은 1차 쓰기 제로출발, 2차 수업실기 제로출발에서 시작한 연간패키지회원입니다. 단계별 실력 상승을 이루어 합격까지 이뤘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패키지는 안정적 학습기반의 형성과 실력상승을 이룰수 있습니다.

합격자 데이터

장영희 전공 중국어의 초수 합격자와 단기합격비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득점 합격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 강원수석 송** 외 2021 대구 수석 엄** 대구 차석, 3등, 4등

2021 경기 합격 장** 강**

2020 경기 3등 조** (1차최고득점, 전공71점, 2차고득점)

2020 서울3등 하* *(2차고득점)

2020 대구 3명 모두 2차 고득점

2020 전북 박* *(2차97점)

- - - 2020초수 1차합격자 7명, 최종합격자5명, n수 다수

2019 경기 차석(2년-1차 고득점, 2차 고득점, 중국4개월연수), 경기 4등(2년, 1차 컷 가까이, 2차 97.5점) 그 외 다수

2019 서울 차석(3년, 회소 2년), 서울 3등(2차반수강) 그 외 다수

2018 경기4등 경기 7등 경기 12등 그 외 다수

2018 대구 수석(초수)

2017 경기 3등(초수), 경기, 서울 고득점 그 외 다수

2016 서울 수석(초수), 서울 차석(n수), 서울 4등(n수)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2015 인천 1차 수석 최종 차석 그 외 다수

2015 충북 차석 그 외 다수

그 외 장영희 수강생합격자는 다수 합격 획득입니다

2. 선생님 학습(합격) 전략

(1) 1차 학습 전략

첫째, 기본기를 닦고, 이해를 기반으로 쓰기 훈련에 집중하는 수업을 한다

쓰기 연습을 많이 하는 수업방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장영희 중국어의 특징은 3월부터 전 강좌 쓰기 시험과 첨삭을 실시한다. 최근 시험은 장문의 답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문이 있으면 합격이 어렵기 때문에 쓰기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80점 중 쓰기가 68점을 차지한다. 생소한 문제는 모두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변별력은 쓰기 문장력에 따라 부분점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쓰기실력이 합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장영희전공중국어 수업에서 첨삭은 강사가 직접하기 때문에 수강생 한명 한명씩 수준과 상태를 다 파악하고 개별로 적합한 피드백을 하고 바로 수업에 반영한다. 1-3년 단기 수강에도 불구하고 합격과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합격생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다. 수업을 쭉~ 따라오면 합격이 보인다.

둘째,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한다

중국어 임용시험도 시행 년 수가 오래되면서 기출문제가 매우 많다. 기출문제는 상당 부분의 주요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중요한 학습교재다. 그런데 기출문제만 보는 방식으로는 숲을 보기 어렵다. 각 영역의 주요 개념과 또 심화 개념을 알아야 숲과 나무를 이해할 수 있다. 기출문제와 실제 시험과의 연관성은 높기도 하고, 때로는 낮기도 하다. 수업의 주요 기본 학습을 섭렵하면서 기출문제를 통한 학습은 내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학습을 더욱 견고하게 해 줄 수 있다. 강좌별로 수준별로 기출문제 해설과 반복연습을 실천하다.

셋째, 주요 내용은 연간 9회 이상 점진적으로 반복한다

임용공부는 범위가 방대하다. 수업이 해도 내용을 잊어버리고, 덮으면 한 줄 쓰기가 어렵고, 나는 왜 이럴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에 괴로울 때가 많다. 임용학습은 내용의 방대함과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만, 각 영역별로는 기본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장영희 전공중국어는 연간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시켜준다.



1544-3169 단기합격 강의 시스템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년간 1-2월 수업부터 11월까지 9번 이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기본 내용이 흰하게 들려지는 효과를 얻는다. 어려운 내용을 몰라서 불합격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내용을 흰하게 익히지 못하고, 또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또 오문 없이 조리 있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 장영희전공 수업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쓰기를 하면서 세밀한 내용까지 잡을수 있도록 한다.

넷째, 코로나시대 긴밀한 온라인소통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시험대비에 집중할수 있다

코로나시대가 2년 이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2022년에도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어하면서 공부해야 할 것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 온오프 수업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다. 다만 혼자서는 집중력과 지구력이 떨어지는 선생님들은 현장참여를 권한다. 장영희전공중국어는 매년 학습의 동력을 이어주고 안정적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자 전 회원을 밴드 초청하여 수시로 수업 안내와 힘이 되는 글을 올리며 단체 채팅 혹은 개별 채팅을 통하여 연중 학습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2차 학습 전략

그건 중국어는 다른 외국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말하고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원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2차 시험은 중국어로 말하기 비중이 매우 높다. 정상적으로 국내 대학 중문과를 졸업한다고 해도 중국어 교사임용 2차 시험인 면접의 답을 말하고 중국어로 수업을 원만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경쟁력이 높은 시험에서 유창하게 잘 하려면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학원의존도가 높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달리 말해서 학원에서는 학원 수업을 통하여 2차 시험 주요한 영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행하고 있다. 그래서 학원수업을 착실히 따라오면 2차 시험 각 영역별로 상당 수준에 오를 수 있다. 많은 합격생이 기간제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임을 볼 때, 기간제 경험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다. 2차반은 12월 2차완성반과 1월 2차실전반 2강좌가 개설된다. 기간제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도 수업시간 내 훈련을 통하여 충분히 극복을 해 왔다. 장영희 2차 수업 강점과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영희 2차 수업은 95점을 목표로 합니다. 유학10년과 오랜 임용지도 경력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칼^^ 피드백과 자녀 양육경험으로 중등학교 실제 사례를 통한 지도로 2차 최적 지도를 한다고 자부합니다. 2차도 제로 출발에서 고득점 합격 전략 지도를 합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3) 첨삭 지도 샘플

첨삭은 3월부터 11월까지 직장, 인강 모든 강좌(12강좌)에 걸쳐 실시합니다.

예) 1. (1) 改正: 三年前, 我们在一起学习过。
改正根据为: 动态助词“过”表示过去的事情, 它跟表示动作进行的动词重叠形式“学习学习”不符合, 而且“三年前”更明确地表示已经过去的事情。
(2) 改正: 星期六我要跟我的中国朋友见面。
改正根据为: “见面”是动宾结构的动词, 后面不能带接受动作的对象。如果要表示动作的对象, 用介词引进接受动作的成分。
(3) 改正: 在中国, 我去过很多地方旅游。
改正根据为: 当表示上次句子时, 一般写“去过什么地方旅游”的形式。
(4) 改正: 他很仔细, 花钱小里小气的。
改正根据为: “小里小气”是形容词“小气”的“AB里AB”重叠形式。因此“小里小气”里已经有程度深的感情色彩, 所以它不能接受程度副词“很”的修饰。

3-4월.
1. 造字法: 形声
造字原理: 由形部和声部拼合而成一个字。
这五个字从现在的字形上不易看出该造字原理的原因:
这五个字繁体字和简体字: 觀(观), 鷄(鸡), 嘆(叹), 鸞(鸾), 鸞(鸞)
这五个字里繁体的声部都变成了同样“又”字。所以现在的字形上不易看出形声原理。
2. 词语是最小的能自由运用的单位。词语是从词逐层而成的。可以单说, 可以单用, 可以整字的读音, 成句子成分。词也可以单说, 单用, 成句子成分。不过词和短语有区别特征。短语不是最小的能自由运用的单位。词能独立运用。

문항 9 (4점) 3.6	(A)本来我是一般人,在南阳从事农业,不希望在乱世出名,只希望保持自己的生命。 (B)先帝不把我以为卑鄙,却把自己*委屈,来了好几次找我贫穷的家。
문항 10 (4점) 2.5	在句(1)~(2)中找出所有动词活用为名词的词语:句(1)中笑;句(2)中喊杀。 ①因为“笑”是动词不能接助词“的”修饰得多。 ②因为“喊杀”是动词不能位于“起”的宾语位置上。 ③显然“喊杀”是动词活用为名词作宾语。
문항 11 (5점) 3.5	(A)和(B)的划分依据如下: (A)分句之间的关系是平等的;(B)分句之间关系不是平等的,有重要的,有次要的,而是偏正句。 写出各复句中两个分句之间的逻辑语义关系如下: 划线部分“独立运用”指的意思:可以单说,单用(没有实际语义,而有语法上的语义)。
문항 12 (5점) 3.5	用剩余法分析句(B)含有6个词。先可以分析有实际语义的“他”“来”“送”“信”,然后可以分析有语法上的语义的“又”“了”。

한글문항	2. 填空
1. a. 有达夫	b. 孔乙己
b. 沉沦	c. 药
c. 颓废	d. 故事新编
	e. 在酒楼上
2. a. 语丝	
b. 小品文	c. 幽默、冲淡
b. 冲淡平和	
c. 朴实无华	d. 《明王》: 通过寡妇和儿子的关系,表现农民的落后和自己的全部希望寄托在儿子上,表现了农民的愚昧。
d. 冰心	
e. 母爱	
f. 母爱	2. 《野草》: 通过少年闰土和中年闰土的对比,表现了农民在精神和生活上的苦难。有借喻小语。
g. 母爱	
h. 母爱	
i. 母爱	
j. 母爱	
k. 母爱	
l. 母爱	
m. 母爱	
n. 母爱	
o. 母爱	
p. 母爱	
q. 母爱	
r. 母爱	
s. 母爱	
t. 母爱	
u. 母爱	
v. 母爱	
w. 母爱	
x. 母爱	
y. 母爱	
z. 母爱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5】 2024학년도 대비 연간 커리큘럼

[정규강좌] (전강좌 온오프강의방식 혼용)

1-2월이론입문반(9회)은 임용의80%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3-11월 이후 모든 강좌에 참석이 있습니다. 전반기 전 강좌 기출해설집 사용합니다. 강의날짜는 개강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	강좌	내용	교재
1-2월	이론 입문반	-독해를 제외한 1차시험 전범위 학습 -★임용시험의 80%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 교육론과 어학개론,장영희,미래가치 02 어법, 장영희, 미래가치 03 문학개론(현시대·고대), 장영희,미래가치 *문학개론,기출해설-인강제공
	독해 입문반	-현대 문학 작품, 고대 한어, 속어, 문화 학습:3~4,5~6 독해 심화반과 연계 -★기출독해 6월까지 완독	1.장영희전공중국어 - 독해(입문편) 2.기출문제 해설집, 장영희(1~8월사용) 3.필독단어집,장영희,미래가치 *문학작품,구어-인강제공
3-4월	이론 실력강화반 I	-임용1차시험 필독원서 강독 -이론전영역 필수문답 쓰기연습 -기출문답 쓰기연습 -이론심화 학습(전반1/2학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1.장영희전공중국어-이론실력강화편 2.실용현대한어어법(증정본), 유월화등공저, 상무인서관 3.현대한어(상, 제6판), 황백영등주편, 고등교육출판사,북경
	독해 실력강화반 I	-현대문학작품, 고대한어, 속어 -고대 - 현대문학사 연계 설명 -문학사와 속어 쓰기 연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1.장영희전공중국어 - 독해실력강화편 2.기출문제 해설집, 장영희(1~8월사용) 3.필독단어집,장영희,미래가치 *문학작품,구어인강제공
	고급첨삭반 I	-매주 이론모의고사와 독해 모의고사 실시 -어법오문장수정&난점석의(전반1/2학습)*인강제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1.외국인학한어난점석의, 북경어언대출판사 2.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수정본), 노복파외공저,북경어언대출판사 3.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해설집(수정본)
5-6월	이론 실력강화반 II	-임용1차시험 필독원서 강독 -필수내용과 기출문답 쓰기연습 -이론심화 학습(후반1/2학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장영희전공중국어-이론실력강화편
	독해 실력강화반 II	-현대문학작품, 고대한어, 다양한 속어 -문학사 연계 설명 -문학사와 속어 쓰기 연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1.장영희전공중국어 - 독해실력강화편 2.기출문제 해설집,장영희(1~8월사용)
	고급첨삭반 II	-매주 이론모의고사와 독해모의고사 실시 -어법오문장수정&난점석의(후반1/2학습)*인강제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1.외국인학한어난점석의, 북경어언대출판사 2.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수정본), 노복파외공저,북경어언대출판사 3.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해설집(수정본), 노복파외공저,북경어언대출판사
7-8월	이론 문풀반	-문제를 통한 전범위 이론 학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프린트
	독해&문학사 문풀반	-문제를 통한 독해와 문학사 학습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프린트
	80점 모고반	-범위설정 모의고사	프린트

9-10월	하프모고&중점 원문파헤치기	-첨삭과 개별피드백 실시 -어법,어학개론 중점원문 파헤치기 -이론 독해 총괄 주별 테스트 실시 -도약을 위한 매주 디딤돌 모의고사 실시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프린트
	도약모의고사반	-누진 범위와 무범위 모의고사 -실력 도약을 기대하는 도약 모의고사 실시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프린트
11월	실전 모고반	-실전력 강화를 위한 모의고사 -첨삭과 개별 피드백 실시	프린트

[특강]

진행 월	강좌명	교재	수강생 무료 특강
1-2월	이론기출해설	주제별기출해설, 2020개정판	-1~2월이론입문반
9-10월			-9~10월 도약모의고사 수강자
1-2월	문학사기출해설	주제별기출해설, 2020개정판	-1~2월독해입문반 수강자
9-10월			-9~10월하프모고&중점원문파헤치기반수강자
3-6월	어법특강-난점석의	외국인학한어난점석의, 북경어언대출판사	-이론심화반 수강자 -독해심화반 수강자
7-8월	어법특강-실용어법오문장해설	1.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수정본), 노복파외공저,북경어언대출판사 2.대외한어교학실용어법해설집(수정본)	-이론문풀반 수강자
7-8월	문학사맥잡기	프린트	-7~8월 독해문풀반 수강자
9-10월			-9-10월하프모고&중점원문파헤치기반 수강자
9-10월	지도서특강	고등학교 교과서 2종	-9~10월 수강자 전체
11월	이론총정리	프린트	-도약모의고사반 수강자



【6】 1-2월 강의 계획 : 두강좌(이론입문반, 독해입문반)

1. 강의명	이론입문반																																																																						
개강일	01.04(수)		종강일	02.22(수)																																																																			
수업횟수/요일	9회/수요일(토요일1회)		수업시간	7시간																																																																			
교재	01 교육론과 어학개론,장영희,미래가치 02 어법, 장영희, 미래가치 03 문학개론(현당대·고대),2021개정판, 장영희,미래가치 (신간) 04.기출문제 해설집,장영희(1~8월사용)																																																																						
한줄 강의특징	-독해를 제외한 1차시험 전범위 학습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강의 -2개월 텀별로 수준별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연말 합격수준 강의에 도달합니다. -연간(1~8월)기출문답 반복 연습을 통하여 기출 관련 문제를 정복한다.																																																																						
강의특징	- 매주 복습확인테스트 실시 - 첫시간 스터디 구성 - 년 중 상담을 통하여 학습방향 설정 *교재는 매 수업때 4권 필요합니다.																																																																						
상세 강의계획 (주차별)	<table><tr><th></th><th>어법</th><th>어학개론</th><th>교육론</th><th colspan="2">문학개론(현대/고대)</th></tr><tr><td>교재</td><td>교재 02권</td><td>교재 01권</td><td>교재 01권</td><td>03권 현대</td><td>03권 고대</td></tr><tr><td>1회 (1/4)</td><td>명,대사,수량사</td><td>서론, 어휘(~168)</td><td></td><td>1-2장</td><td>선진</td></tr><tr><td>2회 (1/11)</td><td>동사,형용사</td><td>어휘168~181</td><td></td><td>2장</td><td>한대</td></tr><tr><td>3회 (1/18)</td><td>부사,전치사, 접속사</td><td>어휘~192</td><td>2015개정 교육과정</td><td>3장</td><td>위진</td></tr><tr><td>4회 (1/25)</td><td>조사, 주어, 술어, 목적어, 관형어,부사어,</td><td>어음 (267~285)</td><td>서론,제2언어 가설 (79~100)</td><td>4장</td><td>당대(1)</td></tr><tr><td>5회 (2/1)</td><td>보어(1)</td><td>어음 (285~301)</td><td>교수법 (101~110)</td><td>5장</td><td>당대(2)</td></tr><tr><td>6회 (2/8)</td><td>보어(2)</td><td></td><td>교수법 (114~120)</td><td></td><td>송대</td></tr><tr><td>7회 2/11토</td><td>연동,겸어,존현문</td><td>어음 (301~316)</td><td></td><td>6-7장</td><td>원대</td></tr><tr><td>8회 2/15</td><td>파자문,피자문 是~的句</td><td>문자 (194~234)</td><td>지도안 작성</td><td>8장</td><td>명대</td></tr><tr><td>9회 (2/22)</td><td>비교문,복문,기타, 표점부호</td><td>문자 (235~265)</td><td>교재론, 지도법</td><td></td><td>청대</td></tr></table>						어법	어학개론	교육론	문학개론(현대/고대)		교재	교재 02권	교재 01권	교재 01권	03권 현대	03권 고대	1회 (1/4)	명,대사,수량사	서론, 어휘(~168)		1-2장	선진	2회 (1/11)	동사,형용사	어휘168~181		2장	한대	3회 (1/18)	부사,전치사, 접속사	어휘~192	2015개정 교육과정	3장	위진	4회 (1/25)	조사, 주어, 술어, 목적어, 관형어,부사어,	어음 (267~285)	서론,제2언어 가설 (79~100)	4장	당대(1)	5회 (2/1)	보어(1)	어음 (285~301)	교수법 (101~110)	5장	당대(2)	6회 (2/8)	보어(2)		교수법 (114~120)		송대	7회 2/11토	연동,겸어,존현문	어음 (301~316)		6-7장	원대	8회 2/15	파자문,피자문 是~的句	문자 (194~234)	지도안 작성	8장	명대	9회 (2/22)	비교문,복문,기타, 표점부호	문자 (235~265)	교재론, 지도법		청대
	어법	어학개론	교육론	문학개론(현대/고대)																																																																			
교재	교재 02권	교재 01권	교재 01권	03권 현대	03권 고대																																																																		
1회 (1/4)	명,대사,수량사	서론, 어휘(~168)		1-2장	선진																																																																		
2회 (1/11)	동사,형용사	어휘168~181		2장	한대																																																																		
3회 (1/18)	부사,전치사, 접속사	어휘~192	2015개정 교육과정	3장	위진																																																																		
4회 (1/25)	조사, 주어, 술어, 목적어, 관형어,부사어,	어음 (267~285)	서론,제2언어 가설 (79~100)	4장	당대(1)																																																																		
5회 (2/1)	보어(1)	어음 (285~301)	교수법 (101~110)	5장	당대(2)																																																																		
6회 (2/8)	보어(2)		교수법 (114~120)		송대																																																																		
7회 2/11토	연동,겸어,존현문	어음 (301~316)		6-7장	원대																																																																		
8회 2/15	파자문,피자문 是~的句	문자 (194~234)	지도안 작성	8장	명대																																																																		
9회 (2/22)	비교문,복문,기타, 표점부호	문자 (235~265)	교재론, 지도법		청대																																																																		

시 간	강 의 내 용
1교시 10:10~12:00(110분)	어법
2교시 13:00~14:30(90분)	어학개론
3교시 2:40~3:30(50분)	확인문제 풀이
4교시 (100분)	문학사(고대,현대) (인강제공)
5교시 (50분)	교육론(인강제공)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2. 강의명	독해입문반							
개강일	01.6(금)			종강일	02.24(토)			
수업횟수/요일	8회/(7회:금요일 1회:토요일)			수업시간	7시간			
교재	1. 장영희 전공중국어 -독해(입문편), 2018사용 - 반드시 지참 2.기출문제 해설집 ,장영희(1~8월사용)- 반드시 지참 3. 필독단어집, 장영희, 미래가치(1~6월사용) 2018사용 - 개인별 활용학습 *구어,문학작품-인강제공							
한줄 강의특징	- 기본작품 강독과 문학사 연계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문학사 맥잡기에 유리하다. - 기출독해 연습을 통하여 중초급 독해 실력 상승효과를 얻는다 - 임용 독해 영역 전체(현대한어, 고대한어, 속어)를 학습한다							
강의특징	-현대문학작품, 고대한어, 다양한 속어 학습: 3~4, 5~6 독해 심화반과 연계 -중국어 임용 독해 주요 영역 강의. -연간 수준별, 단계별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연말 합격수준 강의에 도달합니다.							
상세 강의계획 (주차별)		3교시	4교시	1~2교시 10:00~11:30/11:40~13:00			2교시 14:00~15:30	
	영역	현대한어 (문학작품: 운문,산문)	(속어) ①습관용어 교정 ②속어교정	기출문제해설집 (초중급독해(비문학)/문학/속어)			고문	
				비문학(초중급/ 문화/신조어)	문학 현대 산문	고대 산문		속어
	1회 1/6	시가(1,2) 소설산문1~3	①② 1과	2021-A7	5	2021-1-B A3 8	2021-A3 1-3	시(1,2) 산문(1,3)
	2회 1/20	시가(3,4) 소설산문(4~6)	①② 2과		6	1 2	4-6	시(3~5) 산문(4,5)
	3회 1/27	시가(5,6) 소설산문(7~9)	①② 3과	초중급독해1~3 문화(교과교육) 70, 72 (126쪽)	7		7-9	시(6~8) 산문(6,7) 교육사상1.2
	4회 2/3	시가(7,8) 산문(10~13)	①② 4과	초중급4~6 문화73, 75	9	1 3	10-12	시(9~11) 산문(8, 9)
	5회 2/10	시가(9,10) 소설산문(14~16)	①② 5과	초중급7~9 문화76~77	1 0		13-15	시(12~14) 산문(10~11)
	6회 2/17	시가(11,12) 소설산문(17~19)	①② 6과	초중급10-12 문화78~80	1 1	1 4	14-18	시(15~17) 산문(12~13) 교육사상3.4
	7회 2/24	소설산문(20~23)	①② 7과	초중급13-15 문화(교과내용) 82- 7 4 (396쪽)	1 2		19-21	시(18~20) 산문(14~15)
8회 2/25토	시가(13,14) 소설산문(24~26)	①② 8과	초중급16-18 문화8 5 - 8 9	1 7	1 5	22-24	시(21~23) 산문(16~17)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23년 1월		※好的开始是成功的一半				
1	2	3	4 이입반개강	5	6 독입반개강	7
8	9	10	11 이입반2	12	13	14
15	16	17	18 이입반3(경기시연)	19 (경기면접)	20 독입반2	21
22 설날	23	24	25 이입반4	26	27 독입반2	28
29	30	3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월			1 이입반5	2	3 독입반2	4
5	6	7 (최종발표)	8 이입반6	9	10 독입반2	11 이입반7 (합격자특강)
12	13	14	15 이입반8	16	17 독입반2	18
19	20	21	22 이입반9	23	24 독입반2	25 독입반8
26	27	28	※10번 잊어버리고 11번째부터 부분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한다! 잊어버렸다고 지치지 마세요, 임용공부는 장기전입니다!			

【7】 합격 후기

*실제 시험 출제경향은 해마다 약간 다르고 수업은 출제 경향에 따라 중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해마다 강의와 합격생의 개별 공부 중점은 약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장영희 임용중국어 카페에 다양한 후기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2021학년도 경기합격 합격 장**

준비기간		전체준비기간: 3년(3년차 기간제 병행),장** 졸업학과: 중어중문학부	
1차 영역별 학습 방법			
이론	어학개론	어법	<p>-유월화, 노복파, 난점석의, 퀴즈퀴즈 네 교재를 봤습니다. 유월화, 노복파를 보면서 어법 서브노트를 정리해서 후반부에 활용했고, 난점석의는 계속 돌려서 반복적으로 봤고, 퀴즈퀴즈는 퀴즐렛 어플을 활용해 이동 중에 봤습니다.</p> <p>-유월화를 기본으로 보고, 노복파에서도 너무 새로운 것을 다 취하려하기 보다는 유월화에 비해 설명이 잘 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사파트가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선택적으로 서브노트에 추가했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들을 두루두루 보기 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또 기출에 나왔던 근거들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p> <p>-난점석의는 1차, 2차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으로 익숙하게 하고, 또 써볼만한 근거들은 따로 체크해서 쓸 수 있는지 점검했습니다.</p> <p>-퀴즈퀴즈는 퀴즐렛 어플을 활용하여 이동중에 계속해서 오문장을 확인하고 틀리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여 틀렸던 오문장을 모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p> <p>-어법 파트마다 주요한 어법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동 중에는 머릿속으로 어법 포인트에 대해서 인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형용사 어법점이 뭐가 있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문장성분에 따라 나누면 비위형용사와 일반형용사, 비위형용사의 특징 4가지...’ 이런식으로 백지쓰기를 머릿속으로 했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계속 고민하다가 원서나 서브노트를 찾아봤습니다. 후반부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게 중요하니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출하는 연습이 좋았습니다.</p>

		어학개론	-3년 공부를 해서 개인적으로 느낀건.. 어법은 새롭고 다양한 것보다, 기본적인 어법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문제에 맞게 인출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재수 때에는 더 새로운 어법 내용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기본이 흔들려서 시험 때 쉬운 어법 문제도 틀렸었습니다. 3년차에는 기본적인 어법점을 정확히 알고 쓸 수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론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면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지루해도 최소 두 번 정도는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중에서도 보통화 정의, 방언에 대해서는 따로 메모리카드에 적어두고 반복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어휘
			어음

			문 자	<p>음번 변조에서 3성, 一, 不 관련 쓰는 내용은 중국어 표현을 입으로도 달달달 나오게 암기해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모든 내용을 다 손으로 써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막히면 손으로 써보며 확인했습니다.</p>
				<p>문자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장영희쌤 기본 한글교재에 그림까지 예시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후반부에도 한글교재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현대한어 표현과 예시를 기본으로 보고, 모의고사에서 문자파트 부분은 따로 잘라서 서브노트에 옮겨 붙여서 꾸준히 보려고 했습니다. 2년차까지는 문자파트가 어렵고, ‘설마 나오겠어’라는 마음으로 비교적 더 좋아하는 어음 파트를 자주 보았다가 시험때 큰 코 다쳤습니다.. 어학부분은 ‘설마 나오겠어?’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출제될 수 있다’는 마음 가짐으로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p> <p>3년차에는 서론, 어휘, 어음, 문자 파트를 다 나눠서 어느 것 하나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울 때, [어휘1(전반부)+ 어음1],[어휘1(후반부)+ 어음2]... 이런식으로 9월 이후에는 영역들을 골고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반부에 어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보고, 어음을 보다보면 어휘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섞어가며 골고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 지켜지지 않는 날이 더 많지만 스스로 의식해서 모든 영역들을 골고루 챙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p>
교 육 론	교 육 정 론	교 육 정 론	교 육 정 론	<p>교육과정은 제일 공부하기 어려웠던 부분 같습니다. 2년차까지는 스테디에서 계획을 세워 함께 보려고 노력했는데, 3년차에 스테디 없이 혼자 공부하다보니 교육과정을 자주 깜빡했습니다. 7,8월 장쌤이 주시는 자료 부분이라도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 때 한번 더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p> <p>交际基本表达의 세부 영역은 메모리카드에 써서 이동중에 외웠습니다. 큰 목차 5가지, 세부 제목들도 작별자 없이 정확하게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예시까지 소리내어 읽으며 확인했습니다.</p>
				<p>교육론은 선생님이 수업중에 설명해 주신 부분, 교재를 보며 마인드맵으로 목차를 정리해서 서브노트에 옮겼습니다. 큰 제목들을 작별자 없이 인출하는 정도로만 공부했습니다.</p>
현 대 대 문 학 사	현 대 대 문 학 사	현 대 대 문 학 사	현 대 대 문 학 사	<p>문학사는 장영희쌤 한글 기본서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초수에는 한글 교재를 1-2월에만 보고, 3월부터는 원서나 정리한 파일 위주로 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한글 교재를 보는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교재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난 후 나눠주신 프린트와 개인적으로 정리한 엑셀 파일을 활용했습니다.</p> <p>기본서 교재를 토대로 정리한 파일입니다. 예를 들면 <좌익시기> 시, 소설,산문,극,논쟁 이렇게 분류를 나눴고 해당되는 과, 작가, 작품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옆에 추가로 쓰거나 포스트잇을 활용했습니다. 후반부에는 한 눈에 문학사 한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키워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문학사</p>

독 해	현 대 한 어	현 대 한 어	<p>엑셀+7,8월에 장영희쌤이 나눠주시는 문학사 프린트를 엮어서 후반부에는 이 자료 위주로 보고, 부족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기본서 교재를 찾아 봤습니다.</p> <p>문학사는 주로 백지쓰기로 공부하였고, 손으로 써보며 특히 작별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p> <p>수업 시간에는 장쌤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고 판서 할 때는 빈 종이를 꺼내 조금씩 앞서가며 스스로 판서하며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장쌤이 꼼꼼하고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셔서 문학사 이해가 잘 되지만 스스로 정리하고 백지를 써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p>
			<p>습관용어는 스테디를 통해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p> <p>[초수] 임용을 시작한 그 전 기출에 습관용어가 많이 출제되어서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스테디 원과 습관용어 단어, 뜻을 포스트잇에 적고 뽑아서 말로 인출하기, 아침에 스테디원과 습관용어 내용 읽기 등 꾸준히 연습했습니다.</p> <p>[재수] 스테디원과 나눠서 퀴즐렛 어플에 습관용어20회, 속어교정10회(?)를 홀수, 짝수 나눠서 입력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어플을 통해 보면 포스트잇을 만들고 관리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또 이동중에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삼수] 재수 때 만든 퀴즐렛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출퇴근시 어플을 통해 단어표현과 뜻을 보고 잘 안외워지는 부분은 별표 표시를 해서 따로 암기했습니다. 버스에서는 어플을 눈으로 보거나 속으로 뜻을 말해보거나, 정말 힘든날은 버스에서 자고 가더라도 습관용어 소리가 재생되도록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쉬는시간에 출근 때 본 습관용어 단어를 백지에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실제 단어를 쓰면서 작별자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p> <p>속어교정은 습관용어 만큼 정성껏 보지 못했습니다..</p>
독 해	현 대 한 어	현 대 한 어	<p>속어는 장쌤이 주신 백시리즈 프린트를 계속 돌려 봤습니다. 하루에 1번-20번 까지 정해서, 5일 동안 1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2년차 스테디 때 밴드로 번갈아가면서 낸 문제가 있어서 3년차 공부를 할 때에도 그 밴드 문제를 혼자 풀어보았습니다. 성어는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을 골라서 성어, 뜻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중국어로 성어 뜻을 입으로 연습했습니다.</p> <p>초수 때 속어 부분의 문제가 쉬운데 꼼꼼히 보지 않아서 틀린 경험을 토대로... 재수 때부터는 적은 양이라도 꼭 골고루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수 때는 7월 이후부터 스테디원과 밴드로 문제를 내며 공부했고, 삼수 때에도 7월 이후로 스테디 플래너에 속어 계획을 포함하여 꾸준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법, 어학 공부를 하다보면 속어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녁 먹고 무조건 속어 먼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꾸준히 보려고 했습니다.</p>

	고대 한어 작품	초수 때에는 수업 시간에 고문을 읽어도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차에는 고문노트를 만들라고 하셔서 장썸이 주신 주요 목차들을 보며 스스로 고문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두에 작품명을 검색하면 ‘작품명, 작가, 작품배경, 고문표현, 백화표현, 단어 해석 등’ 잘 나오기 때문에 바이두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 검색을 하면서 네이버에서 한글로 그 작품 내용을 해석한 글을 읽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배경이해가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해석은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고문에 시간을 많이 쏟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문노트도 7,8월까지는 만들어보고 그 뒤로는 시간이 없어서 새로 추가하진 않고 정리한 작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 내용, 단어 표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현대 문학 작품	초수에는 따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작품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수 때에는 독해의 어려움을 느끼고 장썸 노란색 단어장(필독단어집)에서 현대문학 단어를 스터디원과 외웠습니다. 이 과정을 후반부에 시작해서 오래하진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현대문학 단어를 외웠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단어를 외우면서 어려웠지만 다른 작품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 확실히 단어를 외우니 문학작품 독해가 수월해졌습니다.
서 브 노 트	서브노트정리는 어떻게 했는지요?(월별 영역별 어떤식으로 했는지요)	
	저는 주로 어법 서브노트를 열심히 만들었고, 서브노트 외에도 기본교재(한글책, 원서)를 옆에 두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법] 유월화 원서 기반으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노복파, 난점석의, 모의고사 근거 등을 계속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초수 때 만들고 재수 때 보충하여서 삼수 때까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후반부에 편히 봤지만 계속해서 원서를 사전 찾듯이 찾아가며 함께 봤습니다. 서브노트를 정리할 때 어법내용에서 기출된 부분은 초록색 형광펜으로 체크해두었고, 파트 앞 부분에 기출 내용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법은 기출 된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렇게 정리하니 어떤 파트가 빈출되었는지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후반부에 서브노트만 돌리지 말고 유월화를 눈도장 찍듯이 보면서 서브노트에는 없지만 기본적인 내용들도 확인하려 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당 파트의 문제를 잘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동사파트 문제를 서브노트 동사 파트 뒷 부분에 붙여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고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학] 어학은 현대한어 책을 사용했고 따로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메모리 카드에 정리해서 이동시에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초수 때 만든 메모리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문학사] 초수, 재수 때 엑셀 파일로 문학사를 만들고 계속해서 수기로 추가했습니다. 한 눈에 보	

	기 쉽게 엑셀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 기본서 교재, 모의고사 답지에 해설 내용 등을 추가적으로 함께 봤습니다.
1차 강작별(월별) 학습 방법	
1~2월: 1)초수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배운 내용은 스터디, 개인 공부를 통해 복습했고, 학원에 일찍 와서 배울 내용을 읽어보며 간단히 예습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글 기본서 내용을 몇 번 씩 읽으며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뒷 부분을 배우면 앞에 배운 내용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보고 까먹는 이 과정들이 누적될수록 이해와 암기가 더 잘 되었습니다.	
2)삼수(기간제 병행) 재수 때에는 1,2월 다른 학원 한글 강의를 수강해보았습니다. 삼수 때에는 1,2월에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기간제를 구했습니다. 불합격 후에 바로 당장 공부를 하는 것 보다는 또 1년을 공부해야 한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몸과 마음을 쉬어주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4월: 1)초수 원서로 배울 내용을 미리 한글 기본서 교재를 읽어 예습했습니다. 간단하게 눈으로라도 보고 가면 원서 내용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원서를 보며 근거가 될 만한 문장들은 색연필로 표시해두고 따로 메모리 카드에 옮겨 적었습니다. 교육학, 전공에서도 모두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길래 저는 3월부터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직 원서 표현도 잘 모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출에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년도 기출에서 한글 기출까지 모두 봤습니다.	
2)재수, 삼수(기간제 병행) 재수 때에는 3,4월부터 토요일 고급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론, 독해 수업은 수강하지 않고 초수 때부터 함께 스터디 하던 선생님과 학원 진도에 맞게 공부하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학원 진도 표에 맞게 공부를 하고 밴드를 통해 매일 매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를 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방향으로 스터디 방향과 방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할 때는 남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며 스터디 방법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수 때에는 기간제를 병행하며 학기 초에는 따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주말에 작년도 3,4월 모의고사를 혼자 풀어보고 모범답안을 외웠습니다. 오랜만에 내용을 보다보니 이전에는 잘 알던 것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이해되고 외워지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공고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법 원서, 현대한어 등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5~6월: 1)초수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3,4월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때부터 원서를 보며 표시한 문장들을 서브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브노트를 한 번에 완성한다는 마음보다는, 점점 완성해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부담이 적습니다. 기출을 계속 보면서 출제 되었던 어법 근거들을 표시하고 그 내용들을 위주로 서브노트를 먼저 채워갔습니다. 어법은 기출 된 어법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하여 외우도록 했습니다.

2)재수, 삼수(기간제 병행)

재수 때에는 5월부터 평일 이론,독해반과 토요일 고급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함께 스터디 하는 선생님과 고급반 모의고사 때 제출하지 않은 다른 모의고사 답안지를 서로 채점해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 어려운 착별자, 어색한 문장들을 체크하여 어떻게 고칠지 이야기해보고 장쑤께 질문 하며 공부했습니다.

삼수 때에는 5월부터 고급반 모의고사를 수강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의고사를 제출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못 본 것 같고 제출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 틀리고 확실히 알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날 것 그대로 답안지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인강은 특히 타협할 부분이 많지만 모의고사 제출만큼은 타협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8월:

1)조수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프린트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빠듯하기도 했지만 이론 프린트는 최소 2번은 보고 가려고 했고, 독해 프린트는 꼼꼼히는 아니어도 1번은 다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형광펜 색을 따로 정하여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란색-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 부분/ 노란색- 질문할 부분/ 빨간색-새로운 내용, 서브노트에 추가할 내용 등... 수업을 들으며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포스트잇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잘 표시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때에도 꾸준히 기출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기출18년도 A형,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 계속해서 기출을 돌렸습니다.

2)재수, 삼수(기간제 병행)

재수 때에는 7,8월 평일 수업과 토요일 모의고사 반을 수강했습니다. 이 때에는 확실히 초수 때보다 프린트를 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초수 때와 달리 어떤 구별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합격자 분이 재수 때에는 스터디원과 누적하여 공부했다고 하여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2주차 내용을 배울 때, 1주차 내용을 누적하여 오문장 퀴즈, 어학 부분 써 볼 만한 내용 써서 밴드에 올리기로 누적 공부를 했습니다.

삼수 때에는 토요일 모의고사반만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월말, 8월부터 꾸준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제 일을 병행하면서 상반기에는 공부를 하다가 또 며칠 공부를 쏙 안하다.. 등성등성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늦춰지면서 여름 방학이 짧아졌고 마음이 급해져 8월 부터는 매일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공부하기’를 목표로 아무리 피곤해도 스터디카페에 들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는 학원 진도표에 따라서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모의고사를 풀고 제출했습니다. 토요일에 모의고사 3회를 풀면, 주중에 한 번 더 3회와 지난 주 2회를 누적하여 복습했습니다. 2번 이상 또 틀린 문제는 색깔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3)교육학 (삼수 때)

7,8월부터 교육학 모의고사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삼수 때 교육학 강사를 바꿔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교육학을 안하다가 하반기에 강사를 바꿔 들으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출퇴근 버스에서 교육학 강의를 들으며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왔거나 강사가 강조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에 옮겨 적어 계속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9~10월:

1)조수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했습니다. 9,10월 자료도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7,8월 자료 내용이 더 기본적인면서도 꼼꼼하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여 서브노트와 7,8월 자료 위주로 봤습니다. 9,10월 자료 중에 서브노트에 없어서 추가할 내용, 새로운 표현 등을 표시하며 공부했습니다. 초수 때에는 기출 내용을 외울 정도로 많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독해 부분보다는 어법, 어학 부분을 꼼꼼히 반복하여 봤습니다.

저는 파란색 잉크젤펜을 사용하여 쓰기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에이포 종이를 구멍 뚫어 묶어서 가지고 다니며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가 보다 손으로 쓸 수 있는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계속 쓰다보니 초수 때 10월 즈음에 쓰기 실력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실력이 늘고 있는지 몰랐지만 연습이 누적되다보니 어느 순간 쓰기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보호밴드를 할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에는 손목을 관리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 시험 볼 때 다른 한 손으로 손목을 잡고 답을 썼습니다..ㅠㅠ

2)재수, 삼수(기간제 병행)

재수 때에는 ‘혹시 모르는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아 보려고 했습니다. 노복파에 색다른 표현들, 다른 학원의 생소한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며 최대한 많은 것들을 두루두루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게 패인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찾다보니 이전에는 확실히 알고 있던 기본 내용들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때가 되니 불안하고 모의고사 점수에 크게 일희일비하게 되었습니다.

삼수 때에는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견고하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시험 때에 내 최고 실력이 발휘될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초수, 재수 때 불안이 컸고 예민해져서 모의고사 때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수 때에는 ‘괜찮아. 침착하게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이 때에는 어느 한 파트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파트를 표시해가며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법] 비교문, [문자]4절, [현당대]29~31번, [문학사]명대, [습관용어]11과, [단어]전고1-25. 하루 공부 양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파트를 나눠서 최대한 골고루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교육학 (삼수 때)

7,8월에는 교육학이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교육학보다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에 7,8월에 밀린 강의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9월 강의부터 최대한 밀리지 않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7,8월과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때 틀린 내용, 새로 알게 된 내용은 메모리 카드에 적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기간제를 병행하면서 공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어 출퇴근 시간에 버스에서 2배속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11월(실전모의고사):

1)조수, 재수

초수, 재수 때에는 각 영역에 중요도를 표시해서 중요한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해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p>를 들면, 어법에서 중요내용을 보어, ‘把’자문, ‘被’자문..... 이렇게 정하면 중요 내용을 더 많이 보고, 새로운 오문장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p> <p>2)삼수 (기간제 병행)</p> <p>중요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보긴 했지만, 시험에는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골고루 눈 맞추도록 노력했습니다. 초수, 재수 때에는 定语, 주어, 목적어 이런 부분을 쉽게 넘겼다면 삼수 때에는 그래도 모든 영역들을 한번 씩 꾸준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새로운 내용과 오문장 보다는 기본적인 어법 근거, 퀴즈퀴즈 오문장을 반복하여 봤습니다. 티오, 원서 접수 등을 보며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지만 스터디 플래너에 ‘잘 하고 있다’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긍정적인 멘트를 써가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체력,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4)교육학 (삼수 때)</p> <p>마지막까지 모의고사 풀어보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다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시험이 있는 주에도 목요일 즈음에 모의고사 전체를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 까지도 여전히 헛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학 만점!’이라는 압박이 아니라 ‘아는 것은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기!’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p>
<p>2차 강좌별(월별) 학습 방법</p> <p>12월(2차 완성반-1차합격 발표전):</p> <p>1)마음가짐과 생활방식</p> <p>[초수,재수] 저는 삼수 때에는 12월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초수, 재수 때 12월을 정말 열심히 보냈습니다. ‘나는 된다’라는 마음으로 12월 수업에 임했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즉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1차 불합격 이후에 12월에 너무 열심히 한게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그 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올해에도 1월 수업을 들으면서 금방 실력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임용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1차 결과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p> <p>2)수업활용</p> <p>[초수,재수] 학원 수업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수업실연 영상을 촬영하여 스스로 피드백을 했고, 장썸이 얘기해주는 부분은 바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도 뒤로 갈수록 하루에 3개는 다 못외워도 2개씩 외우고 스터디원과 누적하며 중국어 면접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글 면접도 답안을 구상해보고 혼자 소리내어 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안을 대충 만들어서 외워서 말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p> <p>4)스터디 활용</p> <p>[초수, 재수] 저는 개인 연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혼자 스터디룸을 빌려서 수업실연 하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스터디원과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학원에서 하는 수업 내용으로 피드백 받은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표정, 속도 등을 서로 봐주었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에는 잘한점 먼저! 그리고 개선점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특히 이 때, 판서를 하면서 그동안 잘못 쓰고 있던 획순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p>

<p>1월(2차실전반-1차합격발표후):</p> <p>1)마음가짐과 생활방식</p> <p>하필 올해 12월 수업을 안 들었을 때 합격이 되어 기쁨보다는 당황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당일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중국어면접 메모리카드에서 답변 3개를 외우고, 예전에 찍어둔 수업실연 영상을 보며 대본을 만들었습니다.</p> <p>12월에 너무 편히 지내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게 익숙했습니다... 준비 기간에는 9시 기상, 8시 기상으로 점점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무리해서 일찍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칠판 시트지를 사서 붙여놓고 100% 집에서 온라인 스터디로만 연습했습니다. 초반부터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중후반부터 목에 염증이 생기고 목 상태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시험 때에도 목이 많이 잠겨서 소리가 잘 안나왔습니다.. 꼭!! 초반부터 혼자 연습하실 때 목소리 크기 조절하시고, 모든 내용을 다 소리내어 연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목관리, 몸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면 잘 먹고 쉬어야 해요!</p> <p>2)수업활용</p> <p>모든 수업은 공기계로 별도로 촬영 혹은 녹음하여 개별 피드백을 꼭 했습니다. 장영희 선생님께 받는 피드백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보지만 개인적으로도 늘 피드백을 하여 잘한점, 개선점을 체크하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들어도 중후반 부터는 최대한 실제 복장, 구두를 착용하고 연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면접, 수업실연 구상이 부족할 때에는 정말 접촉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실전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시작했습니다.</p> <p>수업실연, 면접 문제지를 따로 깨끗하게 뽑아서 모아두고 누적 연습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답안을 적어보았습니다.</p> <p>4)스터디활용</p> <p>-중국어 면접, 수업실연은 2차 실전반에서 만난 선생님과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어 면접은 하루에 1개씩 외우고, 1개는 그 전날 면접 누적하여 총 2개를 녹음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꾸준히 중국어 면접을 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p>-수업실연은 수업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줌으로 하다가 이후에는 촬영하여 서로 피드백 해주었습니다. 이 때도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은 저 스스로 먼저 피드백을 해보았습니다. 수업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한 일주일을 남겨두고 교과서2 내용을 토대로 수업실연 문제를 번갈아가며 만들어 연습했습니다. 교과서 본문을 활용하고 조건도 10개 정도 내다보니 실제 시험에서는 조건 6개가 엄청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p> <p>-한글면접은 다른 교과 선생님과 전화 스터디 진행했습니다. 사이다면접 책 뒷 부분 문제를 했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과 면접을 연습하니 답변 내용이 더 풍부해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1대 1로 했었는데, 12월에 다른 교과 여러 선생님과 면접을 연습했다라면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 같습니다.</p> <p>-경기 수업나눔은 수업실연과 배점이 같고 우선순위도 높는데 크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1주정도 지나고 수업나눔 스터디를 구해 타교과 선생님과 전화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솔직한 피드</p>
--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p>백을 주시는 분이어서 수업나눔 내용 뿐만 아니라, 한글 면접 시 잘못된 언어습관, 논리적 흐름 등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업나눔도 꼭 놓치지 말고 골고루 연습하셔야 합니다. 수업나눔 연습할 때 뭔가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 수업의 방향과 흐름을 녹여서 이야기 하면 좋습니다. 저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수업’의 방향을 녹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p>-저는 중반부에 가족들을 앉혀놓고 수업 실연을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다가 누군가 앉아 있다니 또 부담스럽고 색달랐습니다. 가족들 모두 중국어는 못 알아듣지만 자세, 전체적인 느낌, 잘못된 습관(고개를 너무 자주 끄덕이는 것, 팔을 너무 옆구리에 붙이는 것 등)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앉혀놓고 하는게 정말 남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부담스럽지만 추천합니다! 특히 심사위원이 부모님 연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p>
장영희 수업 활용 방법 혹은 유의점	<p>-상호작용, 판서, 시선, 속도 등을 복합적으로 피드백 해주십니다. 종이에 적은 것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녹음해서 보내주셔서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쌤이 피드백 해주신 것을 우선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수업 실연이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p> <p>-중국어 면접은 장쌤 2차 교재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크게 이슈가 되고 중요한 주제는 통으로 외우고, 그 외에도 어떤 문장들은 만능틀처럼 사용할 수 있을까 찾아보며 체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상담에 쓰이는 만능틀/ 학습부진아, 학업격차에 같이 쓰일 수 있는 만능문장 등... 이런식으로 테마를 분류하며 외웠습니다.</p> <p>-한글 면접은 장쌤 수업 때 직접 말해 볼 수 있는 연습의 기회가 되고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해주셔서 유익합니다. 그 외에 12월에 시간이 된다면 교육학에서 구성해주는 다른 교과와 여러 명이 스터디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럿이 이야기 하다보면 답변 내용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p>
준비생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p>1차, 2차 모두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동안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채찍질하며 동기유발을 했는데 안그래도 긴장되고 불안한 시험 순간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때에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잘 할 수 있어!’ 등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걸 하면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늘 부족함이 더욱 보이는 준비 기간이지만... 오글거려도 거울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터디원과 함께 으쌔으쌔!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p>
시험 후 느낀 점	<p>시험을 보고 난 후 아쉬움이 남는 건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실연 때 처음에 목이 잠기고 소리가 갈라진 것이 아쉽고, 또 면접을 평소보다 못했다는 생각에 시험이 끝나고 발표 때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p> <p>2차 시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이 많았고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유튜브에서 2차 시험 실제 진행과정 등을 여러 번 영상으로 보고 머릿속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시험장만 생각하면 긴장되고 떨리지만, 준비하실 때에도 시험장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스스로 많이 그려보시면 당일 날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p>
장영희 수업	<p>장영희 수업장점(1차,2차)</p> <p>[1차] ‘주요내용 반복학습’과 ‘모의고사 피드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법, 어</p>

장점	<p>학, 문학사 등 주요내용을 반복하면서 정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최소 몇 번은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복의 시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써보며 공부하시면 더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피드백을 통해 전체적인 답안의 깔끔함, 내용 등을 피드백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직접 글로 잘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들은 상담을 통해 같이 공감해주시고 방향 설정을 도와주셔서 좋습니다. 초수 때 직강을 수강할 때에는 7-8월, 9-10월 이렇게 새로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장쌤과 개별상담, 스터디 상담을 하면서 공부방향을 점검하고 재설정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p> <p>[2차] 수업실연, 면접 꼼꼼히 피드백 해주시고 또 면접 복장, 이미지 등 전체적으로 체크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또 2차를 처음 준비할 때는 막막한데 장쌤이 필요한 부분은 예시와 시범을 보여주시고 전문가들 영상과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장영희 연간 수업 장점:</p> <p>-커리큘럼대로 공부하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오랜 임용 경험을 토대로 커리큘럼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학원 커리큘럼대로만 공부해도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연간 수업을 들을 때, 다음 달에는 어떡하지? 고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좋습니다.</p> <p>-연간 수업시 비용이 저렴합니다. 두 달마다 결제하려면 비용이 부담되는데 연간 수업시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p>
----	---

2. 2021학년도 대구수석 합격 엄**

준비기간	전체준비기간: 1.5년 대구 엄** 졸업학과: 중어중문 / 중국어교육(대학원)		
1차 영역별 학습 방법			
저는 20, 21임용 모두 1차에 합격했었는데, 20임용에는 개인 사정으로 2차를 볼 수 없어서 21임용에 재도전하였습니다. 첫 해에는 교생실습이 끝나고 6월 말부터 수업을 들어서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이 때 장영희 선생님의 3~11월 강의를 2배속으로 들으며 준비했습니다. 21임용에는 혼자서 자료를 정리하며 준비하고 장영희 선생님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단기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20임용, 21임용 모두 후기를 작성합니다.			
이론	어학개론	어법	(20임용) 장영희 선생님이 수업 때 올려주시는 프린트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수강했는데, 장점이 제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트자료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일주일치만 인쇄해도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p>작은 책 한권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속의 내용을 최대한 다 숙지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한 달씩 진도가 밀리기도 했는데, 대신 프린트 속에 나오는 문법 사항은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p> <p>오문장은 두 달 정도 밴드로 스테디에 참여하여서 매일 5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p> <p>(21임용)</p> <p>장영희 선생님 작년 자료와 유월화, 난점석의를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작년에는 정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준비할 땐 어법 영역별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고, 정리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영역별로 정리할 때 오문장을 함께 정리하여 공부했습니다.</p> <p>난점석의는 친구와 정해진 양을 외우고 매일 확인하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p>
			<p>(20임용)</p> <p>장영희 선생님 프린트 자료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았습니다.</p> <p>어법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다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p> <p>(21임용)</p> <p>현대한어 책을 중심으로 영역별로 정리를 했고, 기출문제와 같이 봤습니다.</p> <p>어휘, 어음, 문자 파트로 나누어서 주요 개념은 전부 암기했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계속 잊어버려서 회독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p>
	교육론	교육과정	<p>(20임용)</p> <p>이때는 교육과정을 열심히 보지 않아서 시험 때도 교육과정 문제를 틀렸습니다. 시험 치자마자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기본표현은 무조건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21임용)</p> <p>교육과정은 중국어로 따로 보는 것보다 내용을 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글로 된 교육과정으로 내용을 계속 파악하고, 중국어로 옮겨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p> <p>의사소통기본표현은 계속 반복해서 외웠습니다.</p>
		교육론	<p>(20임용)</p> <p>교육론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고, 장영희 선생님 수업 듣고 프린트 내용 정도만 눈에 익히는 정도로 봤습니다.</p> <p>(21임용)</p> <p>교육론 정리를 따로 하기는 했는데, 정리만 해두고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p>

			<p>이번 시험에서 교육론 문제가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대로 학습이 안 된 상태라 틀렸을 거라고 예상합니다.</p> <p>(20임용)</p> <p>이때는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파악하기 보다는 일단 프린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반복하면서 외웠습니다. 다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라서 흐름을 기억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실 시험을 볼 때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p> <p>(21임용)</p> <p>시기별로 나누고, 小说 散文 诗 话剧 文学论争 으로 카테고리를 나눈 후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때는 장영희선생님 프린트 내용을 주로 보고, 더 필요한 내용은 바이두에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p>
			<p>(20임용)</p> <p>수업 내용 외 따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습관용어는 반복적으로 보려고 했고, 음원파일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라 오며가며 지하철에서 계속 음원으로 들었습니다.</p> <p>(21임용)</p> <p>습관용어, 속어교정 두 권은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외웠습니다. 외울 땐 처음에는 단어와 한글 뜻 위주로 외웠고, 뒤로 갈수록 중국어로 뜻까지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p>
	독해	현대한어	<p>(20임용)</p> <p>처음에는 장영희 선생님 단어집으로 보다가 뒤로 갈수록 프린트만 봤습니다. 최대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외웠습니다. 어휘 외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어휘는 기본이고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닦자는 생각에서 무작정 계속 외웠습니다.</p> <p>(21임용)</p> <p>장영희 선생님 단어집에서 중요하다고 체크해 둔 내용을 위주로 친구와 매일 일정 부분 외우고 서로 확인하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단어와 뜻 모두 중국어로 외우는 연습을 했고, 2~3회 반복하였습니다.</p>
		고대한어 작품	<p>(20임용)</p> <p>장영희 선생님 기본서, 프린트 내용으로 공부했고, 특히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작품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주요 문장은 최대한 현대한어로 풀어 적어보고 반복해서 외웠습니다.</p> <p>(21임용)</p> <p>장영희 선생님 기본서에 있는 작품들 중 주요 작품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았고 본문, 작가, 주제, 특징, 현대한어해설, 주요단어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노트 어플에 다 붙여넣기 해두고 반</p>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20임용) 장영희 선생님 기본서와 프린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했고, 프린트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대부분 암기했습니다. (21임용) 현대문학 작품은 주로 바이두에서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작품은 본문, 작가, 주제, 인물특징, 작품특징별로 나누어서 정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작품은 꽤 읽었고, 공부하면서 짧은 작품은 시간 날 때 재미로 읽어보면서 줄거리와 주제를 파악했습니다. 긴 작품은 바이두에서 검색해보고 줄거리나 주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현대 문학 작품	
	서브노트정리는 어떻게 했는지요?(월별 영역별 어떤식으로 했는지요) (20임용) 서브노트 정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서 시험까지 5개월이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영희선생님 7~8월 자료를 서브노트 삼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나 정리도 7~8월 자료에다가 대부분 했던 것 같아요. (21임용) 태블릿으로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노트 앱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갤럭시 태블릿이라 안드로이드 어플을 사용했고, 원노트, XODO, 삼성노트 3가지를 주로 쓰고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어요. 서브노트를 만들 때는 중점으로 보는 책 + 참고용 책을 정해 두고 여러 책을 참고로 하되 다음에 볼 때는 서브노트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은 정말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임용 때는 서브노트 아예 만들 생각 없었고 21임용에는 정리가 한 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다 해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20임용이 훨씬 점수가 잘 나오기도 했고, 서브노트 때문에 점수가 확확 올라가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시간 없으면 그냥 7~8월 자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뒤죽박죽이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드세요!
서브 노트	
1차 강작성별(월별) 학습 방법	
저처럼 단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20임용 때 단기 합격했던 학습 방법을 씁니다. (20임용) 6월 말 ~ 11월 1)마음가짐과 생활 슬럼프에 빠지거나 할 시간도 없이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눈뜨면 책상에 앉았고, 자기 전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는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었고, 대전에서 서울로 통학을 했었는데, 기차와 지하철을 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이동하는데 썼어요. 이 시간이 너무 가까워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으로 자료를 보거나, 습관용어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차에서는 프린트 자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다	

고 생각하니 공부가 더 잘됐던 것 같습니다.
2) 강의 저는 6월 말에 강의를 듣기 시작할 때부터 강의가 엄청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3월 강의부터 순차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따로 정리할 시간은 없었고 일단 내용에 익숙해져야할 것 같아서 2배속으로 최대한 밀린 강의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내내 밀린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고, 8월 중순쯤부터 7~8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7~8월 강의부터는 좀 많이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영희 선생님 자료에 있는 프린트 내용은 거의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외웠다고 생각하면 다음 차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때 공부한 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계속 1~2개월 밀려 있었는데, 11월에는 계속 모의고사를 하루에 두 개씩 풀었더니 끝날 때는 다행히 다 푼 상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는 정말 몰아치듯이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몰아치듯이 공부했던 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른 자료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영희 선생님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익히고 간다면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교육학 저처럼 교육학 지식 전혀 없고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교육학을 거의 포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육학 과락만 면하자 주의였습니다. 전공도 급한 상황이라 교육학은 더욱 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웠고, 거의 포기상태였는데 어떤 블로그에서 준비한지 3개월만에도 합격하는 선생님을 보고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8월에 3~4월 강의를 하나 끊어서 들었는데, 강의 선택을 잘 못해서 전혀 도움이 안됐습니다. 저처럼 기초도 없는 분들은 처음에는 완전 기본 강의를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 9~11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고, 아예 아는 내용이 없어서 모범답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모범답안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제는 어떻게 제시하는지 확인하고 따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 무조건 풀고 외웠어요. 마지막 모고강의는 보통 요약정리를 나눠주시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 중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의 내용은 모두 외웠습니다. 나머지 파트에서는 주요내용은 이해하는 수준으로 공부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17.67점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게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례도 있으니 꼭 포기하지 말고 교육학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육학과 전공공부 시간은 나누어서 매일매일 병행했고, 오후 2~3시 까지는 교육학, 나머지는 잠들 때까지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교육학을 공부하신다면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1임용) (1) 전공 21임용은 전 년도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며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 해보다 넓고 깊게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20임용 때 무작정 외우기로 공부를 했다면, 21임용에서는 카테고리별로 학습하고 제 나름의 순서를 만들고 반복하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9~11월은 장영희 선생님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평가해보았습니다. 모의고사는 칠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끕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p>때 계속 점수가 오락가락하긴 했었는데, 모의고사를 친 후에 틀린 내용을 반복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의고사 내용 중에 시험에 그대로 출제된 부분도 있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p>
<p>(2) 교육학</p> <p>교육학은 친구와 매일매일 스터디로 전화 통화하면서 외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내용을 한 번 훑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와서 이번 교육학은 19.67점을 받았습니다. 꼭 스터디 하세요. 혼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p>
<p>1월(2차실전반-1차합격발표후):</p> <p>1)마음가짐과 생활방식</p> <p>1차 시험이 끝나면 후련하면서도 '아,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1차합격발표가 난 후에는 1차 준비보다 더 힘든 시간을 2차 준비를 하며 보내게 됩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마음 굳게 먹고 눈앞에 닥친 과제들을 해내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p> <p>아침 6시 기상, 새벽 1시 취침으로 플래너를 매일 아침마다 짜고 쉬는 시간 거의 없이 매일매일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시간을 아껴 써도 저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앞으로 쭉 설 수 있으니까 합격하고 쉬겠다는 마음으로 안 쉬고 공부만 했습니다.</p>
<p>2)수업활용</p> <p>처음 학원 등록하고서 선생님 학원 커리큘럼대로 면접, 실연을 준비했습니다.</p> <p><면접></p> <p>선생님과 일대일로 면접을 보고 나면 선생님께서 더 추가할 내용과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처음부터 정리를 다시 하고, 모범 답안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선생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p> <p><수업실연></p> <p>실시간이든 녹화든 실연을 해 본 후 선생님께 피드백 받은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대구라 실연 시간이 25분이고,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해야 하는데, 원래 성격이나 분위기 자체가 활기찬 게 아니라서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께서도 더욱 활발하게 해야 한다, 더욱 친절하게, 더욱 재미있게 몰입해서 해야 한다. 많이 말씀해주시고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도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안대로 최대한 해보려고 하니깐 점점 실연 분위기도 밝아지고, 자리가 잡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인문소양이랑 시책 준비 등 할 게 너무 많아서 실연준비는 정말 많이 못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연습한 틀을 하나 두고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연습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 학원에 가서 해보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때 직접 해본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p>4)스터디활용</p> <p>학원 등록하자마자 선생님께서 스터디를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글면접 스터디 진행하고, 같이 대구 지원한 분과 시책, 인문소양 스터디를 했습니다.</p>

	<p><스터디 - 한글면접></p> <p>다른 지역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줌으로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진행하였고, 면접레시피 책으로 각자 구상형3, 즉답형 3 문제를 내고 자신의 지역에 맞게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대구자체문제는 같이 준비할 수가 없어서 평가원 문제 스터디라고 생각하고 참여했습니다. 스터디 처음 시작할 때 15분간 자신이 맡은 문제를 각자 풀고 돌아가면서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명이 대답하면 나머지 두 사람은 한 명이 내용, 한 명이 태도를 봐주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돌아가면서 풀었고, 이 때 다들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피드백해주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p> <p><스터디 - 대구자체문제></p> <p>대구 자체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책, 인문소양이 있어서 공부할 양이 엄청 많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벅찰 것 같아서 대구 선생님 한 분과 스터디를 짜서 같이 진행했고, 처음에는 시책을 한 파트씩 공부해 와서 면접문제에 녹여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 인문소양과 관련지을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려고 했습니다. 인문소양 스터디는 각자 분담하여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p> <p><중국어면접></p> <p>중국어면접은 따로 스터디 하지 않고 학교 친구가 매일 도와줘서 하루에 일정 양을 외우고 외운 걸 검사받는 식으로 해서 중요한 주제는 거의 대부분 하나씩은 다 외웠고, 최대한 회독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외위도 외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꾸준히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도와줘서 괜찮았는데,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강제성이 떨어져서인지 잘 안 외우게 되더라구요.</p>
<p>장영희 수업 활용 방법 혹은 유의점</p>	<p>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온라인학습의 장점을 살려서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우선 제가 내용을 한 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의라서 진도가 조금 밀리더라도 일단은 제 속도대로 공부를 했어요. 실강 듣는 분들은 실강이 주는 현장감이랄까 진도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 등등 또 나름의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셨으면 하고, 저처럼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온라인 강의도 정말 좋아요!</p> <p>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듣고, 그 부분은 꼭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게 복습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p> <p>2차 수업에서는 현장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강의실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장영희선생님 앞에서 꼭 해보세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p>
<p>준비생들</p>	<p>포기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라요. 임용에 합격하는 사람은</p>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에게 꼭 애 주고 싶은 말	늘 있잖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중에 내가 안 될 건 뭐야 라는 마음으로 나도 할 수 있다고 늘 마인드컨트를 했습니다. 단기합격? 내가 못할 건 뭐야! 혹은 이번에는 무조건 내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도전하고, 늘 주어진 과제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시험 후 느낀 점	시험 준비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다 끝나고 나니 정말 후련하고 성취감이 듭니다.
장영희 수업 장점	장영희 수업장점(1차,2차) 1차 수업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점, 쓰기 연습을 계속 하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답안 작성방법도 몰라서 이걸 어떻게 쓰나 걱정이 많았는데, 모범답안을 옮겨 적고, 그 속에서 저만의 답안 작성 방식을 만들고 하다 보니 어느새 극복이 되더라구요.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도 저는 좋았어요. 가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기는 했지만, 시험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구요! 2차 수업은 일대일로 진행되어서 피드백을 자세히 받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딱딱 짚어주셔서 좋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선 선생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면접 답변을 짤 때 학생, 학부모, 학교 입장에서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못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짚어주셔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연습하면 확실히 수업실연이든 면접이든 많이 느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 하는 부분들은 또 잘했다고 칭찬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자신감이 없고 우울한 순간들에 선생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학년도 대구합격, 서**

준비기간	전체준비기간: 2년 서** 졸업학과: 중어중문학과
서브 노트	서브노트정리는 어떻게 했는지요?(월별 영역별 어떤식으로 했는지요) 초수 때 어학, 어법 노트 정리했습니다 어학은 <현대한어>를 정리했습니다 책 내용을 제 방식으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어법은 기출된 어법점들을 기출 답안과 <노복과 대외한어> 참고하며 정리했습니다 재수 때도 초수 노트 계속 봤습니다 노트는 정말 기본 위주로 정리했어서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다시 정리하기 보다는 노트 계속 무한 반복 암기하고 예시나 심화 내용 조금씩 덧붙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1차 강좌별(월별) 학습 방법	
3~6월: 1)마음가짐과 생활 재수는 초수와 달리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으니 3~6월을 하반기를 열심히 달리기 위한 위밍업이라고 생각하고 비교적 가볍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때 관리형 독서실을 다녔었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피곤해했었습니다 공	

부 시간은 확보되었지만 공부의 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제 컨디션에 맞게 페이스를 조절하려고 했었습니다
2)전공 새롭게 다시 공부하기 보다는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 번 읽어보고, 또 초수 때 못 봤던 책들을 몇 권 더 훑어보는 정도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책 내에서만 봤고 새로운 것을 더 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3)교육학 저는 초수 때 전**쌤 강의 들었었고 점수가 나쁘지 않았기에 계속 전**쌤 자료 봤습니다 교육학 역시 강의는 듣지 않았고 <핵심톡톡> 다시 읽고 <논객특강> 한 번 풀어봤습니다 <논객특강>은 가지고 있던 책이었고 이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7~8월: 80점모의고사 모의고사 당일은 시간 체크 용도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답안지에 바로 적어보기도 하고 키워드 위주로 적어두고 마지막에 답안지에 옮겨 적어보기도 하고 순서대로 풀어보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는 뛰어넘고 풀어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며 계속 시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이론 강의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어보며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이후에는 답안을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었습니다
3)교육학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초수 분들과는 7-8월 강의도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초수 때는 7-8 강의 들었는데 이때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학 문제 풀면서 공식 외우는 느낌? 물론 암기가 어렵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넘겨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참여했습니다 3명에서 <핵심톡톡> 기반으로 계속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9~11월: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저는 아침 잠이 정말 많아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정말 어려워했기에 아침에는 스터디로만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학사 스터디 후 곧바로 교육학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2)도약모의고사&실전모의고사 7-8월때와 크게 다를 것 없이 계속 서브노트와 모의고사 답안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3)스터디 9-11월에는 스터디도 여러 개 했습니다 혼자서는 잘 보지 않게 되는 영역을 스터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1.단어 스터디: 100시리즈와 습관용어 봤습니다 2.기출 스터디: 장영희쌤 모의고사에 기출과 거의 유사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수 때 이미 기출을 몇 번 풀어봤기에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생각만큼 답이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출 스터디를 통해 매일 연도나 문법점 상관없이 랜덤으로 출제하여 풀었고,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3.문학사 스터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참고하여 평일 아침마다 고대문학 3문제 현대문학 1문제 출제 후 교환하여 풀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어로, 답은 단답형 중국어로 출제하였습니다 답은 오타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종이에 써서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3)교육학 마지막 모의고사는 풀어봐야 할 것 같아서 전**쌤 강의 들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4개 정도 꾸준히 풀었습니다.그리고 스터디는 1대1 전화스터디 했습니다 역시 <핵심톡톡> 기반으로 계속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장영희 수업 활용	저는 장영희쌤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전공은 칼채점 방식으로 굳혀진 듯합니다 그럼 칼채점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해보니 모범 답안과 최대한 비슷하게 쓰는 게 유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 리고 그 모범 답안은 출제자가 논문이나 원서에서 뽑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장영희쌤 답안은 정말 자세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답안을 또 하나의 서브노 트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단어나 문장 구성 등을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 했었습니다. 칼채점에서는 핵심만 쓰는 답안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적어 해당 지식을 표현하는 답안보다 모범 답안에 가장 근접한, 정말 원서에 써있을법한 답안이 점수를 좀 더 많이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생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재수 때 합격자 분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공부 방법은 합격하면 비 법이고, 아니면 고쳐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절대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공부방법이 아니라는 것' 시험 끝나고 생각해보니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수 때 공부 방법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인 것도 아 닌니다 방법이 뭐가 됐든 시험장에서 내 머릿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 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건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9월쯤 되면 한마음카페에 모의 고사 점수가 너무 낮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점삭 받을 때 30점 이상 받은 적이 1번?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이후 부 족한 부분을 더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후 느낀 점	사실 저는 이론 강의를 많이 수강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론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 았습니다 시험 당일 역시 모르는 문제도 많았구요. 재수 이상 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하시거나 어쨌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 도 좋지만 내가 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수 때 기출 문제를 풀고 초수 답안이랑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답안 쓰는 스타일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답안을 고치기 위해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만약 답안 작성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많 이 외우는 게 답입니다 외우다 보면 답안 작성법이 귀납적으로 도출됩니다. 저 또한 그런 경 험을 했구요. 아는 문제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점수 따내겠다라는 마인드로 답안을 모범답안에 근접하게 작성하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수이신분들은 기본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에 합격을 못했던 이유는 너무 제멋대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수 때 이론 강의도 많이 듣지 않았고 점삭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습니 다. 그러다 보니 많이 에둘러 공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용은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수는 아무래 도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에 효율적이기 쉽지 않습니다. 장영희쌤의 다년간의 노하우를 믿고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2021 대구합격, 전**

준비기간	전체준비기간: 2년, 대구, 전혜지	졸업학과: 중어중문학과
------	---------------------	--------------

1차 영역별 학습 방법		
이론	어법	대외한어교학 실용어법(노복파)이라는 책을 활용했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고, 서술형 답안에 쓸만한 설명들에 밑줄을 그으면서 자주 써봤습니다. 또 퀴즈퀴즈 중국어문법이라는 책을 활용해서 매일 test 1회씩 풀며 틀린 문장을 찾아 고 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병구900례, 난점석의 책도 여러 번 읽었어요. 책들마다 조금씩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7~8월에 장영희 선생님 하프모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 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답안이 아주 상세해서 이해하기 좋았던 것 같아 요. 틀리거나 헷갈렸던 문제들은 꼭 다시 책이나 답안 풀이로 확인하고 넘어갔고,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장영희 선생님 모범답안을 한 번씩 따라 쓰고 외웠습니다.
	어학	현대한어 책과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학 파트가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용도 너무 생소하고 중국어 실력도 낮은 상태에서 답을 작성하려고 하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 교재로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현대한어 책과 암기카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반복할수록 이해하는 속도가 빨 라지고 어떻게 답을 작성해야할지 포인트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학파트는 특히 기출을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장영희 선생님 수업의 장점은 기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과 비슷한 유형, 내용의 문제를 많 이 접하여 답안을 써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점점 다른 문제로 응용 확장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론	다른 영역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라 교육론은 상대적으로 공부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교육론 공부를 할 때 기입형 문제로 잘 출제되는 교제기본표현 방식, 기출문제, 문법 어학 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교 육과정은 장영희 선생님 자료와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단어, 문 장 위주로 외우고 자주 읽었던 것 같아요.
	현당대문 학사	현당대문학사교정, 장영희 선생님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저는 현당대문학사 교정을 하루에 한 과씩 꼭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작품 이름, 키워드를 가먹지 않 기 위해서 백지쓰기, 빈칸 채우기 연습을 자주 했습니다. 이 때 9~10월 도약테스트 자 료를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문학사 공부를 하면서 항상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영희 선생님 수업은 문학사 설명이 자세하고 자주 복습을 해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문학사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독해	현대 한어	현대한어 공부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하지 않았지만 고문독해 현대한어 해설이나 원서 를 자주 읽고 답안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속어는 100시 리즈, 외국인 실숙어, 습관용어, 속어교정 등의 자료를 매일 반복하여 보고 중국어 뜻 백지쓰기를 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각각 10개씩 외우는 것도 벅 찼지만 계속 반복하면서 5개씩 점점 늘려나갔습니다. 저는 어휘 외우기를 습관화시켜서 정말 공부하기 싫은 날에도 어휘 백지쓰기는 꼭 하려고 했습니다. 백지쓰기를 하면서 어휘량이 느는 효과도 있었지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고대 한어 작품	저는 기출문제와 주요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 번 회독을 했습니다. 고문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막막하게 느껴졌던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글 자도 너무 많고, 짧은 문장 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한어 해설과 한자 뜻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다보니 어느 샌가 문장 속의 규칙이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고문 공부를 하면서 저는 특히 바이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해석이 어려운 글이나 모의고사에서 처음 접한 고문은 항상 바이두에 검색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제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방식대로 현대한어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현대 문학 작품	현대문학도 고문과 마찬가지로 기출과 주요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고급한어 교정에 실려 있는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히고 쉬운 작품을 우선으로 보고 점점 난도를 높여갔습니다. 꾸준히 어휘 공부를 했던 것이 현대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또한 따로 정리해서 외웠습니다.
서브 노트	따로 필기를 하여 서브노트를 만드는 대신 학원에서 받은 프린트 자료를 잘라 암기카드를 만들고 추가적인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링철을 해서 중간 중간에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서 넣을 수 있었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직접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면 굳이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차 강좌별(월별) 학습 방법		
3~6월: 1)마음가짐과 생활 1차 탈락 후 두 달간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3월부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새 강의를 듣지 않고 작년에 공부했던 교재와 자료를 가지고 복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매일 독서실에 일정시간 출석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번 봤던 익숙한 내용들이라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했지만 동시에 망심하기 쉬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년도에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고 계획도 타이트하게 세워서 지냈습니다.		
2)전공 7월부터 장영희 선생님의 80점 모고반 수업을 들을 계획이 있어서 그 전까지 충분히 복습을 해놓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전년도는 한국어 교재, 타학원에서 제공했던 자료로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고, 현대한어, 난점석의, 실용어법 등 원서를 구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수 때에 비해서는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초수 때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급급했다면 재수 때는 암기, 기출, 문제 적용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3)교육학 전공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초수 때 받은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재수 때는 핵심특목, 키워드쑥쑥 내용을 다시 한 번 훑어보고 각 영역별로 암기 후 백지쓰기 인출을 했습니다. 3~6월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과정, 행정, 평가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7~8월: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날씨가 더워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였습니다. 일부러 시원한 음료를 사들고 공부를 하러 가거나 중간중간 너무 힘들 때 친구와 만나 쉬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복습하느라 스스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80점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공부 자극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p>이론, 독해반을 수강하지 않고 모고반만 들었지만 최대한 진도에 맞춰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답안이 많이 부족해서 제출하기도 두렵고 원하는 점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 회마다 답안을 제출했고, 장영희 선생님의 세세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점 답안 작성에 대한 자신감과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범답안을 그대로 외우려고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합격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p> <p>3)교육학</p> <p>교육학은 암기, 백지쓰기 인출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과정, 행정, 평가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 시기부터는 전 영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따로 듣지는 않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전년도 모의고사 자료를 풀어보면서 교육학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p>
<p>9~11월:</p> <p>1)마음가짐과 생활방식</p> <p>시험이 점점 압박하여 불안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 효율이 가장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9~10월 강의를 수강하면서 들어야 할 강의가 많아졌고, 혼자 복습할 시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기상시간을 좀 더 당기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하루 이틀은 휴식을 취하면서 기력을 보충하고 다시 열심히 했습니다. 11월에는 정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시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p> <p>2)중점원문파헤치기&하프모고반</p> <p>저는 공부한 내용을 백지 인출이나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이 때 장영희 선생님의 중점원문, 도약테스트 자료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중점원문, 도약테스트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적어보기도 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원서 내용을 참고하여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p> <p>3)도약모의고사</p> <p>한주동안 공부한 내용을 모의고사를 풀면서 테스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아주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스트레스 받거나 밀리지 않고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1월에는 오답 확인과 풀이만 하고, 일부러 점수를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데만 힘썼습니다.</p> <p>4)교육학</p> <p>시험 몇 주 전에 교육학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단과 강의를 수강하였고 따로 모의고사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전년도 모의고사 자료를 풀어보면서 교육학 논술 답안 작성 연습을 했습니다.</p>
<p>2차 강좌별(월별) 학습 방법</p>
<p>12월(2차 완성반-1차합격 발표전):</p> <p>1)마음가짐과 생활방식</p> <p>1차 시험 전후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집에서 2차 완성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밖에 없어서 강의 수강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되돌아보니 미리 들어두기를 잘 한 것 같아요. 12월에는 합격 발표가 나기 전이어서 1월만큼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1월이</p>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좀 더 수월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2)수업활용	
면접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은 면접레시피 교재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장영희 선생님의 한글 면접 수업에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생활, 학생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국어 면접은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셨는데, 그 때 외워둔 답변이 이후에 면접 답변을 할 때도 많이 떠오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자주 틀리는 성조, 발음을 교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스터디 활용	
타지역 응시한 선생님과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한글 면접은 면접레시피 교재와 강의를 활용하여 묻고 답하기 스터디를 진행했고,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중국어 면접, 수업 실연은 학원 수업 전 날에 미리 외운 내용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고, 덕분에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2차실전반-1차합격발표후):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12월에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장영희 선생님 수업을 믿고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면접과 수업실연을 준비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바쁘고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매일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나쁜 생각은 떨치고 주어진 일만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2)수업활용	
면접, 수업실연을 하면서 구체적인 개별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면접이나 수업실연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장영희 선생님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스터디활용	
대구 응시 선생님과 함께 시책, 인문소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구 2차 강의를 듣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고 시책을 면접 답변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았습니다. 인문소양은 예상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중국어로 구상하여 서로 공유했던 것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타지역 선생님과는 함께 수업실연,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면접 문제 한 세트를 만들어서 대담해보는 연습을 했고, 수업실연은 기출을 위주로 연습하여 각자의 틀을 만들고 교과서 내용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준비생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5. 2020학년도 경기 3등 합격 조**

조 * *	경기 , 3 등 , 전체준비기간: 2 년 (최종 3 등) 중어중문학과졸
-------	---

		1차점수 교육학 17 전공 71 총 88 (2차점수 90.28)	
1차 영역별 학습 방법			
이론	어학개론	어법	<p>초수 때는 학원에서 나가는 것만 보면서 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유월화 책에서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을 메모리카드에 옮겨 적고 오고가면서 보며 외웠습니다. 문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3-6월에 유월화책을 볼 때 누적해서 복습하며 외운 것을 까먹지 않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를 배울 때 명사, 수량사를 간단히 라도 훑고 공부하는 식으로 그전에 했던 부분을 눈으로라도 익혔 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니 8월쯤 어법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9-11월에 쓰면서 공부하는 것을 적게 하였는데 시 험장에 가니 잘 쓰여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p> <p>재수 때는 쓰는 것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공부할 때 무 조건 쓰면서 했습니다. 재수 때 개인적으로 노복파책을 1회독 하고 유 월화책만 봐도 된다고 느껴서 유월화책을 봤습니다. 초수 때보다 난점 석의를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서 번호만 보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계 속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9-11월까지도 쓰기를 놓지 않고 아는 문 제도 더 정교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복파책을 제외하고 학원진 도를 따라가며 공부했습니다.</p> <p>퀴즈퀴즈 중국어로 새로운 오문장을 보고 적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답안이 나와있지만 중요한 오문장은 중국어로 답을 쓰는 연 습을 하고 궁금한 표현은 교수님께 질문을 하여 해결했습니다.</p>
		서론	<p>서론은 7-8월부터 자세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써봐야 하는 부분은 써보며 공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외우고 나서는 반복해서 백지쓰기를 하면서 원서의 표현과 확인하며 공부했습니 다.</p>
	어학개론	어휘	<p>초수 때는 주로 눈으로 공부하면서 내용을 외우는 것에 집중하였습 니다. 하지만 재수 때는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고 1회독 한 후에는 백 지쓰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큰 목차를 먼저 적고 그 밑에 세부 항목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백지 쓰기를 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중요한 부분만 중국어로 외우고 예시를 꼼꼼하게 봤는데 하반기에는 사소한 표현까지도 원서의 표현을 익혀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p>
		어음	<p>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려웠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쉬운 파트가 어 음파트였습니다. 어음파트 역시 현대한어 그대로의 표현을 익히고 답 지에 쓰려고 노력했습니다.</p>
		문자	<p>초수 때는 문자 파트를 소홀히 공부했는데 재수 때는 하다 보니 재 미있어서 특히 하반기에 자주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문자파트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를</p>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생각하며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문자파트는 백지쓰기로 하면 예시를 꼼꼼하게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반대로 예시를 보면서 내용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교육론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7-8월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진도에 맞춰 눈으로만 읽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문장 이외에는 키워드만 중국어 표현을 외우고 한국어로 보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교육론	모의고사에 문제가 나오면 교수님께서 해주신 설명을 적어놓고 그것만 봤습니다. 명칭 정도만 중국어 표현으로 익히고 나머지 내용은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문학사		초수 때는 비중이 크지 않은 작가, 작품명까지 다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재수 때는 큰 틀을 바탕으로 주요 작가들과 작품들, 키워드 등을 착별자 없이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글 교재를 한번 읽고 백지쓰기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며 보완해나갔습니다. 문학사맥잡기 특강을 통해서 중간에 한번 정리하며 빠진 부분을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메모리카드에 서술형으로 나올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고가며 보고 외웠습니다. 시험 날 당일에도 보면서 문학사 서술형 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고대, 현대 문학사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독해	단어	초수 때는 습관용어와 100시리즈(교수님께서 찍어주신 단어)만 공부했는데 재수 때는 100시리즈 전체를 좀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초수 때는 학원에 오는 날을 활용해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스테디를 했는데 재수 때는 밴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밴드를 활용하니 주중에 매일 외우고 확인해서 하루에 몰아서 확인할 때보다 부담이 적었습니다. 습관용어는 단어를 보고 뜻을 중국어로 떠올리거나 중국어 뜻을 보고 단어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밴드를 활용해 매일 양을 정해두고 스테디를 했습니다.		
	고대 한어 작품	초수 때는 문학 작품 독해 자체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시험문제로 고문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는 3-6월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진도대로 혼자 고문노트(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를 만들어 가며 공부했습니다. 고문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고문이 해석되는 것이 신기해서 재미있었습니다. 고문노트를 만들고 시험전날까지 중요작품 순으로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문장만 현대한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현대 문학 작품	상대적으로 현대문학작품은 소홀히 공부하여 모의고사를 풀 때 가장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3-6월에는 강의를 듣지 않고 모의고사 때 나오는 문제위주로 독해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의 지문은 교수님께서 해설해주실 때 모르는 단어를 적어놓고 혼자 볼 때 가려서 해석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주로 답안을 외워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현대문학작품이 문제로 나왔을 때 답안을 쓰면 구사력이 떨어진다고 피드백을 받아서 모범답안자체를 통으로 외우고 외웠는지 여부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답안은 메모리카드에 따로 정리해두고 수시로 봤습니다.
서브 노트	<p>서브노트는 어법정도만 하고 어학은 현대한어를 그대로 활용하고 문학사는 전년도 합격자의 서브노트에 필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어법은 1-2월에 한글교재를 보면서 품사파트만 서브노트 정리를 하고 7월부터 나머지 부분을 중국어로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오문장과 답안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페이지 결과보여 내용 정리, 2페이지 오문장(중요한 오문장, 자주 틀리는 오문장), 3페이지 오문장 답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계속해서 내용이 추가 되어서 링으로 된 노트로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초수 때는 서브노트를 많이 활용했는데 재수 때는 주로 교재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p> <p>메모리카드를 활용해서 서술형으로 나올만한 문학사, 문학작품문제, 어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초수 때 서브노트 이외에도 3-6월에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문장들을 정리해서 오고가는 길에 암기했습니다. 자주보니 금방 익숙해져서 8월쯤가니 어법 내용이 정리가 되고 답안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p> <p>지도서내용을 1과에 1장정도 내용으로 정리해서 후반부에 계속 돌렸습니다. 지도서가 두껍다 보니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올만한 내용은 서술형으로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p>	
1차 강작별(월별) 학습 방법		
<p>1~2월:</p> <p>1)마음가짐과 생활</p> <p>초수 때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p> <p>재수 때는 2차 발표가 난 후 휴식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스스로 떨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멘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월에는 부담을 갖지 않고 체력을 회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월 셋째 주쯤에 짝스터디를 시작하고 스테디 준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놀았습니다.</p> <p>2)이론입문반</p> <p>수요일에 수업이 끝나면 목요일에 그 내용을 다 복습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눈으로라도 한번 훑고 나서 간단히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법은 서브노트를 간단히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학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고 문학사는 주요 키워드는 중국어로 써보면서 나머지는 그냥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확인테스트를 활용하여 매주 배운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누적해서 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 전주 내용을 시간이 없으면 확인테스트를 활용해 보고 시간이 있을 경우 빠르게 훑어나가는 방식으로 자주보려고 노력했습니다.</p> <p>3)독해입문반</p> <p>수업시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트정리도 하고 했는데 점점 이론에 밀려 노트정리는 중간에 멈추고 그냥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작가를 보고 작가에 대한 문학사의 내용을 찾아봤습니다.</p> <p>4)교육학</p> <p>인강을 들으며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복습할 때 중요하다고 해주신 부분을 한번 더 자세히 보는 방</p>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3~4월: 1)마음가짐과 생활 초수 때는 원서내용과 한글교재를 같이 두고 공부했습니다. 원서와 한글교재가 거의 동일하다보니 공부할 때 편했기 때문입니다. 학원 오는 날은 스터디를 해야 해서 일찍 일어났지만 다른 날에는 충분히 잠을 보충하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동시간이 없다보니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자유롭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때는 공부하는 습관을 다시 들이기 위해 3-4월에는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공부를 다시 하려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초반에는 집중을 못해도 앉아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원을 안다니고 짹스터디를 활용해 계획표(스터디 계획표)대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토요일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학원 진도에 맞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본 후에 2회정도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모범답안 그대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현은 교수님께 질문해가며 수정하고 도전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사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쉬어도 된다는 생각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2)이론심화반(Ⅰ) 학원 오는 날은 1시간 일찍 와서 전주에 배운 내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예고문답은 다 외워서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진도가 익숙해졌을 때쯤부터는 전주의 예고문답을 다시 써보는 방식으로 누적해서 공부했습니다. 원서가 익숙해지고 나서는 원서로 복습하고 원서 표현을 익히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3)독해심화반(Ⅰ) (1-2월 학습방법과 동일합니다.)
4)교육학 초수 때 3-4월 인강은 듣지 않고 짹스터디로 1-2월 진도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각자 5문제씩 출제하고 만나서 서로의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고 해당하는 파트(예를 들어 교육평가)의 구조화를 그려서 서로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서 서로 이해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재수 때는 3-6월에 기본서 1회독과 기출문제집 1회독을 목표로 진도를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초수 때 사용한 서브노트에 내용을 추가하면서 단권화를 하려 했습니다.
5~6월: 1)마음가짐과 생활 초수 때 마음가짐과 생활은 3-4월과 동일. 5월에 잠깐 슬럼프가 왔지만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과 따뜻한 조언을 얻고 나아졌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수준을 알려주시고 또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과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상담 후 다시 정신무장을 하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쉬어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5-6월에도 역시 일요일에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3-6월동안 기본적으로 전 체과목을 1회독 하고 어법과 어학은 1.5회독을 하였습니다. (스터디 활용) 0.5회는 중요한 파트를 위주로 봤어요. 예를 들어 어법은 보어부분과 把자문, 被자문등을 다시보고 어학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어학파트를 다시 봤습니다. 재수 때는 정말 쓰기 연습 을 많이 했어요. 모든 내용을 무조건 쓰면서 연습했습니다. 토요일 모의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예고문답 역시 꾸준히 외우고 쓰는 연습을 했

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무조건 반복해서 써봤어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문제는 체크해두고 그 다음날 써보고 모의고사 전날 또 써보고 반복적으로 쓰기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복습 역시 꾸준히 했습니다. 이번에는 독해도 꾸준히 했어요!
2)이론심화반(Ⅱ) (3-4월 방법과 동일합니다.)
3)독해심화반(Ⅱ) (1-2월 방법과 동일합니다.)
4)교육학 초수 때는 5-6월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의여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복습과 해당부분 내용을 기본서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에서 구조화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서로 채점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공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수 때 3-4월 방법과 동일.
7~8월: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초수 때 주마다 봐야하는 자료의 양이 늘어서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한번씩은 꼼꼼하게 보고 외워야할 내용은 외워서 가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웠지만 저는 5월썸 슬럼프가 왔다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봤던 자료를 반복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자료는 적었기 때문에 그냥 하던대로 공부했습니다. 7,8월 자료의 양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주한주 지날수록 적응도 되고 보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첫주에 너무 큰 결심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저는 처음에 그래도 두 번씩은 보고 가자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지치고 자괴감이 들어서 금방 생각을 바꾸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가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재수 때 작년에 한번 봤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확실히 봤던 자료라 금방 익숙해지지만 그래도 익숙함에 속지 않고 무조건 써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자료 볼 때 스티커(색갈별 동그라미)를 활용해서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은 아주 중요, 파란색은 중요, 노란색은 나중에 다시 봐야하는 항목 등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 써보면서 공부했어요. 재수할 때는 잠도 잘 만큼 자고 쉴 때는 쉬어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꾸준히 버텨갈 수 있었어요. 보통 8시반-9시에 일어나서 9시반-10시정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1시간반-2시간 정도로 여유있게 먹고 소화한 다음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하루에 정해놓은 양을 끝내면 휴식시간을 갖고 잠은 12시 전후로 잤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니 더 집중도 잘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2)이론문풀반 (초수, 재수 동일) 수업을 듣기 전 자료를 공부할 때 해당 내용의 원서를 함께 놓고 공부했습니다. 자료에 단권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추가해야할 항목은 검은색 펜으로 필기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색연필을 사용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자료를 읽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는 형광펜과 파란색 펜을 이용해서 필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틀리는 항목은 빨간색 펜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복습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하늘색 색연필을 활용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따로 체크해두고 자주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된 후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자주 많이 봐야 기억도 잘나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워지는 색연필을 추천해드려요!! 잘못 체크했을 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필기 할 때 부담이 없었어요~ 자료를 볼 때 원서를 봤기 때문에 자료와 함께 원서도 1회독 할 수 있었어요. 초수 때는 진짜 눈으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끅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합니다!

로만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원서를 봤고 재수 때는 백지쓰기를 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을 인출하고 부족한 부분은 원서를 보고 채워나갔어요. 자료만 봐도 충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서를 자주 봤어요. 보면서 표현을 익히고 모의고사 답에도 활용하고 배경지식 자체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공부할 때 비중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편이라서 다 꼼꼼하게 봤어요. 어법은 유월화책을 위주로 보고 노북과책은 중요한 파트(보어, 특수동사술어문 등)위주로 봤어요. 어학은 현대한어를 주로 보고 자료를 보며 현대한어에 빠진 부분을 체크하고 현대한어에 필기했습니다.(어학은 서브노트가 없고 현대한어 책 자체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학, 어법 중 서술형으로 나올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오고가면서 보고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원서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정갈하게 답안을 쓰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써봐야 할 항목을 따로 정해서 매일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일과(재수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학 직강 교육학 복습 어법 기출 1개년 지난주 모고 복습 습관용어/100시리즈	교육학 직강 교육학 복습 어학 써볼 항목 지도서 단어 이론 사전자료	스터디 전공 직강 복습 (후다닥) 단어	독해 사전자료 문학사 어학 기출 (해당주차) 지난주 모고 복습 단어	스터디 전공 직강 써볼 항목 단어	전공 직강 질문시간 휴식	휴식

3)독해문풀반

독해 자료는 아무리 오래 보고 싶어도 이론 하다보면 목요일에만 하게 되었어요. 초수 때는 문학작품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주로 문학사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잘 외워갔어요. 재수 때는 3-6월에 고문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노트 위주로 보고 자료에 있는 부분은 추가해서 봤습니다. 고문에서 중요하다고 해주신 문장은 현대한어로 번역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내용이해정도만 했습니다. 현대문학 작품은 해당 주차의 진도대로 3-6월 책에서 작품을 찾아서 쪽 읽어봤습니다. 꾸준히 하지는 못했지만 노란색 단어장에서 문학작품 단어를 외우고 작품을 보니 더 수월하게 독해가 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2-3주정도 하고 포기했습니다. 문학작품들을 먼저 하고 문학사를 하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어서 자료의 내용을 읽어보는 정도로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단어들은 짝스터디로 따로 진도를 맞춰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독해 사전자료의 단어는 목요일 밤이나 금요일에 학원을 가는 시간을 통해 외웠습니다.

4)80점모의고사

답을 최대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때 25분정도는 초안식으로 문제지에 답안을 구상하고 나머지 시간에 답지에 답안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답안을 비워두고 일단 아는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좀 더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문제씩 풀면서 답안을 적는 방법과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옮겨 적는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수업과 지난주 답지의 피드백을 열심히 듣고 개인적인 질문을 마치고 나면 녹초가 돼서 집에 가는 순간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냥 쪽 휴식시간을 가졌습니다.

4)교육학

초수 때는 강의를 듣지 않고 스터디원과 함께 교육학 전 범위를 1회독하였습니다. 범위를 정해서 공부해온 후 서로 질문을 하며 공부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재수 때는 직강(문제풀이반)을 들으며 월요일, 화요일 5시까지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스터디를 위해 진도를 정해 전범위를 복습했습니다.

9~10월: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초수 때 9-10월이 될수록 긴장도 되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스스로 부담을 최대한 적게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자기암시를 하면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덜하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집중했습니다. 조금씩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재수 때 뽀는 인원이 작년보다 확 줄어서 불안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도 당일에 써서 제출하고 고민할 시간을 줄였습니다. 계획을 좀 더 작은 단위로 세워서 동그라미를 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8시로 당기고 식사시간을 1시간으로 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저녁을 먹고 전날 풀었던 모의고사를 복습하고 교육학 스터디를 준비하였습니다. 일요일만큼은 낮잠도 자고 예능도 보면서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풀고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2)핵심원문 총정리&아프모고반 (초수 재수 동일)

수요일의 모의고사는 토요일 모의고사보다 평이하기 때문에 답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핵심원문 총정리는 영역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7-8월 자료를 따로 계획을 세워서 돌렸습니다. 수요일 모의고사는 목요일에 바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할 때 다시 한 번 풀어보고 모범답안과 비교해보고 수업의 필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이미 답을 알지만 아는 것을 더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쓰기 위해 반복적으로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정리방법 (3,4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정리)

문제지 풀기(연필) > 지우고 복사 > 복사한 곳에 수업 듣고 필기 > 답지와 함께 묶어서 정리 > 복습할 때는 원본보고 풀기 > 그 다음 주에 답안지를 받아서 복사 > 답안지 역시 문제지, 답지와 묶어서 정리.

3)도약모의고사

9월부터는 심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더 긴장감 있게 시험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덜 당황하기 때문에 어려워도 최대한 아는 대로 답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 조절을 위해 모의고사 시험지에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5-10분정도 남기고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거의 딱 맞춰서 풀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의식적으로 일찍 풀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 옆에 스티커(색갈별 동그라미)를 붙여서 9-11월 동안 계속 돌렸어요. 3-8월 문제는 표시해둔 문제만 풀고 9-11월 문제는 모든 문제를 계속 해서 풀었습니다.

4)교육학

직강을 들으며 시간 맞춰서 모의고사를 푸는 연습을 했어요. 월, 화에만 했었는데 9월부터는 매일 1시간 30분씩 했어요. 9월에 1회독 하고 10-11월에는 3회독 했어요. 초반에 교육학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후반부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도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지금 몰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1월(실전모의고사):

1)마음가짐과 생활방식

초수 때는 너무 긴장하고 또한 점점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점수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정체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피드백해주실 때 계속 격려해주셔서 힘을 내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재수 때는 조금 더 초연해진 것 같습니다. 떨릴수록 더 써보며 공부하려고 했어요.

10년 현지유학,22년임용강의,쉽게설명하는 강의- 단기합격을 이룹니다

매년 적중률 90%가 맞습니다!

<p>초수 때 후반부로 갈수록 쓰기를 줄이고 눈으로 많은 내용을 보려고 해서 시험장 가서 막상 답을 알아도 쓸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다 써봤습니다. 쓰면서 해야 착별자도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어떻게 쓰는지가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쓰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1월부터는 컨디션 조절도 중요해요. 독감주사도 미리 맞고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요. 토요일에는 수업 후 집에 가서 휴식하고 일요일은 늦잠을 자서 체력을 유지했어요. 일요일에는 주로 주중에 못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다한 경우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p> <p>2)수업활용</p> <p>(9-10월과 동일)</p> <p>4)교육학</p> <p>11월에는 월요일 하루만 수업이 있어서 자습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스터디원과 밴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고 인출하는 방식으로 주 2회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교육학 역시 과목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주 2회(월,목) 교육학 모의고사를 실천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습니다. 실제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 교육학을 공부하려고 9-11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했습니다.</p>	
<p>단기합격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점</p>	<p>1.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기</p> <p>공부하다보면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이 때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치면 금방 지치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기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적당히 쉬고 충전한 후에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p> <p>2.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교수님께 요청하기</p> <p>교수님은 수많은 수험생을 만나보고 또한 가장 잘 수험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세요. 힘들 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얻는다면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터디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을 얻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어요!!</p> <p>3. 쓰면서 공부하기</p> <p>눈으로만 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손으로 쓰려면 어려워요. 물론 구사력이 충분하시면 괜찮지만 저는 구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쓰면서 공부하고 또한 표현이 맞는지 교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표현을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쓰면서 연습한 결과물이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동기부여에도 좋았습니다. 쓰기만 하면 착별자가 나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검토를 통해 착별자 여부를 확인하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를 검토했습니다. 잘 모르겠는 문장은 교수님께 물어보면서 구사력을 높여갔습니다.</p>
<p>N수생 장영희 수업 활용 방법 혹은 유의점</p>	<p>저는 3-6월에는 고급반 수업만 듣고 7월부터 모든 수업을 들었습니다. 혼자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3-6월에는 짝스터디를 활용해서 전체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이지만 최대한 처음 들을 때의 자세로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수업 끝난 시간을 활용하여 질문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고 자신이 약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꼭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p>

<p>준비생들에게 꼭 애 주고 싶은 말</p>	<p>내용이 너무 많지만 미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진도대로 공부하면 어느새 잘 익히고 계실겁니다. 스터디도 적극 활용해서 함께 힘든 점도 나누고 인출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원과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주며 공부해서 덜 힘들고 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하라고 하신대로만 해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꼭 실천해봤습니다. 개인마다 필요한 부분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해가면 더 빨리 실력이 향상하실 되실 수 있어요~</p>
<p>시험 후 느낀 점</p>	<p>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많이 지쳤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나중에는 소중한 자산이 될거라 믿으며 공부했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면서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1차 시험을 보면서 매 교시마다 좌절에 빠졌지만 간식을 먹으면서 심지어는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도 계속 입으로 ‘할 수 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전 교시에 시험본 내용이 아른 거렸지만 최대한 무시하고 해당 교시의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각을 금방금방 전환하시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수험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p>
<p>연간패키지 장점</p>	<p>연간회원 장점:</p> <p>고민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부할 때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높은 집중력으로 공부를 해야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고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공부를 하거나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연간 패키지 수업 장점:</p> <p>진도대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수 때 진도를 따로 세울 때에도 학원 수업의 진도표를 활용했습니다. 혼자 계획을 세우면 특정 과목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교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가까워 질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